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순진 이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과
언어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손솔이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과
언어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순진이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손솔이

인 준 서

손솔이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_____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_____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과 언어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소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유의표집된 다문화가정 아동들로 총 7명이 단일집단으로 구성되었다.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 활동은 각 회기 당 40분씩 주 1회, 총 8회기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선호하는 동요를 바탕으로 노래 감상하기, 노래 가사 토의하기, 노래 부르기, 노래 가사 채우기 및 개사하기, 작사하기를 포함한 노래 만들기 활동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 활동 시행 전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수용·표현 어휘능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 REVT)와 언어창의성 검사(K-CCTYC)를 실시하였으며 활동의 시행 후 동일한 방법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사후 검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에서 빈도분석,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 활동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과 언어창의성에 유의한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 활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과 언어창의성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 활동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과 언어창의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문제 6
3. 용어 정의 7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해 10
 - 1) 다문화가정의 개념 및 현황 10
 - 2)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성 12
2.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14
 - 1)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 14
 - 2)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창의성 16
 - 3)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중재 18
3. 노래 만들기를 활용한 음악치료 22
 - 1) 어휘능력 향상을 위한 노래 만들기 24
 - 2) 언어창의성 향상을 위한 노래 만들기 25
4. 아동을 위한 동요 28
 - 1) 동요의 정의 및 특성 28
 - 2) 동요의 기능 29
5.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32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35

2. 연구 설계	37
3. 측정 도구	38
1) 수용·표현어휘능력검사	38
2) 언어창의성검사	38
4. 연구 절차	40
1) 동의서 및 설문지	40
2) 사전검사	40
3) 실험	40
4) 사후검사	41
5.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 활동	42
1)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 활동 구성	42
2)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 활동 내용	46
6. 자료의 수집과 분석	54

IV. 연구 결과

1.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에 미치는 영향	55
1)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능력에 미치는 영향	56
2)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어휘능력에 미치는 영향	57
2.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58
1)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유창성에 미치는 영향	59
2)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독창성에 미치는 영향	60
3)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융통성에 미치는 영향	

미치는 영향	61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논의	62
2. 제언	66
참고문헌	67
부록	82
ABSTRACT(영문초록)	90

표 목 차

<표 III-1> 대상아동의 일반적 특성	36
<표 III-2> 연구 설계	37
<표 III-3> 언어발달과 음악발달의 특성	43
<표 III-4> 회기별 목표어휘	45
<표 III-5> 활동의 단계별 목표 및 음악활동	47
<표 III-6> 활동의 매 회기 치료적 논거	48
<표 III-7> 활동의 매 회기 노래 및 치료적 논거	51
<표 IV-1> 어휘능력에 대한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증 결과	55
<표 IV-2> 표현어휘능력에 대한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증 결과	56
<표 IV-3> 수용어휘능력에 대한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증 결과	57
<표 IV-4> 언어창의성에 대한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증 결과	58
<표 IV-5> 언어유창성에 대한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증 결과	59
<표 IV-6> 언어독창성에 대한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증 결과	60
<표 IV-7> 언어융통성에 대한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증 결과	61

그림 목 차

<그림 IV-1> 어휘능력 사전사후 평균점수	55
<그림 IV-2> 표현어휘능력	56
<그림 IV-3> 수용어휘능력	57
<그림 IV-4> 언어창의성 사전사후 평균점수	58
<그림 IV-5> 언어유창성	59
<그림 IV-6> 언어독창성	60
<그림 IV-7> 언어융통성	6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세기 등장한 세계화는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허물며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을 가속화하였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결혼 이민자는 전체의 48.2%로, 2008년 102,713명에서 2015년 149,962명으로 7년 사이 4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통계청, 2015). 국내 이민자의 영향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에도 영향을 주어 2008년 이후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50년경에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986,000명으로 늘어나 전체 미취학 아동의 24.7%, 초등학생의 15.3%, 중학생의 1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5b).

여성가족부(2012)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한국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언어(56%)를 지목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6개월 이상 지연을 보였으며(황상심, 2010), 이들의 언어발달지연은 또래관계의 어려움, 학습부진, 낮은 취학률 등의 원인으로 이어졌다(여성가족부, 2012). 특히,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의 비율은 전체 아동의 56.7%(통계청, 2015)로 조기에 언어적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향후 초·중·고 교육에 진입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제한된 언어능력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의 동등한 출발점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학 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습득관련 조기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아동의 언어발달은 어휘발달에서부터 시작된다. 타인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은 적절한 어휘들로 올바른 문장을 구성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이우연, 2012) 어휘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모든 영역에서 제약

을 받을 수 있다(김광해, 1997). 초등학교 국어교육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어휘능력 신장을 강조하고 있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14a), 풍부한 표현과 사고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어휘능력은 아동기에 다루어져야 할 언어능력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어휘 표현은 언어표현을 신장하는 언어창의성으로 연결되어 잠재된 언어표현을 증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글이나 말을 통해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언어창의성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구 및 감정을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표현하고 사고해야 하는 언어능력에 필수적이다. 언어창의성이 높은 아동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창의적 추론이 가능하며 이에 관련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고급어휘를 사용하여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현혜선, 2007).

이와 같이 어휘 능력과 언어창의성은 언어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언어능력에 제한을 보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일반가정 아동보다 어휘능력과 언어창의성에서 낮은 수준의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한나, 2015; 황상심·정옥란, 2008).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휘능력과 언어창의성의 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특히, 언어능력의 결정적 시기인 만 5세(김영태, 2015) 이전에 어휘능력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정부와 여러 민간단체 및 교육기관에서는 언어치료(교육부, 2010; 다누리, 2015)와 미술치료(김가현, 2016), 무용동작치료(김미려, 2012), 문학치료(김주원, 2012; 선애순·권순황, 2010), 원예치료(권희진, 2012), 연극치료(한은숙, 2013) 등 다양한 접근의 치료를 진행하며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읽고 쓰는 등의 학습내용으로 이루어진 언어치료는 아동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못하여 학습을 위한 직접적인 동기를 높

이지 못하였으며(김성옥, 2013), 아동의 학습동기를 유발시켰다는 점에서 예술 치료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자발적 발화를 통해 능동적 언어사용을 유도 시키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보고되었다(전수연, 2014).

음악은 아동기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 중 하나로, 언어발달을 촉진 시키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Nordoff & Robbins, 1983). 이는 음악이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호기심을 유발하여 아동 스스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음악은 타인의 소리와 자신의 소리를 비교해보면서 적절한 소리와 부적절한 소리를 구분하도록 도우며 타인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소리를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의 구조적 패턴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Aigen, 2011). 따라서 아동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은 아동의 언어발달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음악적 표현의 한 형태(Baker & Wigram, 2008)인 노래는 가사에 선율을 붙인 것으로, 노래의 리듬은 지속적인 발성을 유도하고 선율은 소리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노래의 가사는 아동이 경험해보지 못한 어휘들을 접할 수 있게 도와주며 노래의 형식은 안정적인 구조의 경험과 반복학습을 유도한다. 이러한 특성은 언어적 지시 없이 자연스러운 발화를 가능하게 하며(Nordoff & Robbins, 1983), 생성된 선율과 리듬, 타인에게 수용되는 언어를 더하여 노래를 불러보는 것은 아동에게 만족스런 경험이 되어 언어발달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된다.

노래를 중심으로 한 음악치료 기법 중 노래 만들기(songwriting)는 노래 가사를 활용하여 노래를 만드는 방법으로 아동에게 의미있는 언어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 동기를 부여하는 활동이다. 노래 만들기는 언어지연을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중재로, 조건적인 상황에 대해 언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가사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맥락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배현주, 2014). 특히,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질문과 대답을

유도한 노래가사는 아동의 어휘능력을 향상하는데 효과적이다(김경언, 2013). 이는 습득된 어휘를 토대로 맥락에 맞게 노래를 만들어보는 과정이 다양한 상황을 간접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 기술을 연습하게 함으로써 어휘와 언어창의성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래 만들기는 어휘능력과 언어창의성에서 지체를 보이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있어 효과적인 중재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어린이의 정서를 표현한 노래인 동요는 아동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음역과 반복적인 형태, 단순한 리듬, 아름다운 선율로 이루어져 있어 긴장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노래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준다(이삼숙, 2012). 또한 동요의 가사는 아동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어휘로 구성되어 있어 자발적인 언어사용을 유도하며(김미경·최성규, 2008), 시적인 운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습득한 어휘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한다(최은선, 2004). 특히, 동요를 사용한 음악활동은 다른 음악을 사용하였을 때보다 아동의 어휘습득 및 주의집중 향상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소연, 2004). 이처럼 동요는 노래 중에서도 아동을 위해 지어진 노래이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노래 만들기를 시행할 때 아동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시키는데 효과적인 매체로 작용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노래 만들기 활동은 언어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며,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 동요의 활용은 아동의 창의성 증진과 어휘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노래 만들기의 선행연구는 소수이며(박경순, 2009; 손성민, 2010; 송성민, 2006; Hoskins, 1988; O'Callaghan, 1997),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에 관한 연구는 악기연주, 신체동작 등 다른 활동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효과를 입증한 박소연(2004), 송성민(2006), 임혜정(2004)의 연구 등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정서 영역(권윤주, 2010; 김근자, 2009; 김은선, 2010; 성한나, 2016; 오선화·황은영·전유미,

2016; 윤지원, 2011; 이수아, 2016; 정태미, 2010; 주효주, 2012; 황혜진, 2014)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많았으나 언어·의사소통영역(김경연, 2013; 이경미·정규진·최애나, 2011; 차명선, 2010; 최애나, 2012; 최진영, 2015; 홍은의, 2011)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아동기의 언어적 어려움은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지연은 조기에 발견하여 효과적인 중재를 통해 향상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게 친숙한 동요를 활용하여 언어학습에 접근이 용이한 노래 만들기를 적용시킴으로써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과 언어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과 언어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가?

1)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가?

2)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어휘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가?

2.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창의성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가?

1)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유창성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가?

2)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독창성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가?

3)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융통성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가?

3. 용어정의

1) 다문화가정 아동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가정으로 결혼이민자 혹은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5b). 다문화가정의 유형은 결혼이민자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북한이탈주민(새터민)가정으로 구분된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이들의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로 「국적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5a).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은 다문화가정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4세-5세 자녀를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정의한다.

2) 어휘능력

어휘능력은 언어능력의 한 부분으로 단어들의 집합인 어휘를 이해하거나 구사하는 일에 관한 언어사용자의 능력이다(김광해, 1997). 양효순(2008)은 어휘란 어휘능력을 측정하는 평가내용으로서 하나의 단어처럼 단일한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 낱말의 집합체로 보았으며 평가를 위한 어휘의 범주에는 파생접사, 어근,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관용어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어휘능력이란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표현어휘능력과 타인의 말에 사용되는 어휘를 듣고 이해하는 수용어휘능력을 의미하며, 다양한 어휘를 맥락에 맞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능력으로 정의한다.

3) 언어창의성

창의성이란 사회와 문화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물건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의견을 생각해 내는 능력 또는 그것을 기초화하는 인격적 특성이다(전경원, 1996). 이러한 창의성의 하위범주인 언어창의성은 언어 영역에서 나타나는 창의성으로 말하기와 쓰기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창의적으로 느끼거나 생각한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전경원, 2000). 본 연구에서 언어창의성은 많은 어휘를 산출해 낼 수 있는 언어유창성, 기발하고 독특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독창성, 어휘의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언어유통성을 의미하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언어의 모든 영역에서 창의적 언어표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4) 노래 만들기

노래 만들기 활동에는 노랫말 채우기(fill-in-the-blank), 개사하기, 노래 패러디, 즉흥노래 만들기, 작사·작곡하기의 방법이 있으며 내담자의 필요에 따라 여러 기법들을 사용한다. 노래 만들기란 치료사가 치료를 목적으로 주제 및 음악요소의 일부를 제공하고 내담자가 노래의 가사, 선율, 리듬, 음악적 스타일, 반주 구성 중 한 가지 이상 창작에 참여하여 음악을 창작, 기보, 기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Baker & Wigram, 2008).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노래 만들기 기법은 치료적 목적과 아동의 특성, 그룹 활동의 제한성을 고려하여 노랫말 채우기, 노래 패러디, 작사하기로 구성한다.

5) 동요

아동이 부르는 노래인 동요는 일정한 형태의 반복과 후렴이 있어 쉽게 외울 수 있으며 가사와 선율이 단순하고 반복적이어서 아동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다(이삼숙, 2012).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게 친숙하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으로 음폭이 크지 않으며 반복되는 악구가 많고 단순한 리듬과 선율로 이루어진 곡으로 정의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해

1) 다문화가정의 개념 및 현황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 가정으로 결혼이민자 혹은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5b). 다문화가정의 유형으로는 한국인 남성과 여성 결혼이민자 혹은 한국인 여성과 남성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결혼이민자가정,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가족을 동반하여 거주하거나 국내에서 가족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외국인근로자가정, 마지막으로 북한체제와 사회를 떠나 남한사회에 정착한 북한 출신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새터민)가정 등이 있다(문성식·김이진·김연경·김민주, 2012).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은 구성원의 유형 및 특성별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2015년 한국 국적 미취득자 및 국적 취득자를 모두 포함한 결혼이민자가정은 국제결혼가정(305,446명)중 전체의 48.2%(149,962명)로써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은 유형으로 보고되고 있다(통계청, 2015).

결혼이민자 중 여성 결혼이민자는 125,073명(84.8%)으로 남성 결혼이민자 22,309명(15.1%)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5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2014b). 이는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하여 한국남성이 동남아시아 국가의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여성 결혼이민자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27.8%)이 가장 많았으며 중국(20.6%)과 한국계 중국인(18.8%)이 그 뒤를 이었다(안전행정부, 2015a).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현황 중 중국 국적의 결혼이민자 비율은

매년 가장 높았으나(통계청, 2009), 2006년 중국, 사할린 등으로 강제이주되었던 재외동포를 위하여 일정기간 취업 및 방문을 허용하는 방문 취업제를 실시한 후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할 필요가 사라지게 되어 그 수는 감소하게 되었다(하명타잉, 2008). 반면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인 도이모이(Doi moi) 실시 이후, 베트남과 한국 간 활발한 교류로 인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베트남 내의 한류열풍으로 인하여 한국 생활에 대한 환상이 생기면서 베트남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이 증가하게 되었다(김미진, 2010; 하명타잉, 2008).

베트남결혼이민자는 타 국적 여성에 비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통계청, 2009), 이는 결혼생활에서의 기대 불일치와 한국 생활에 대한 적응력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서 대부분의 결혼이민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선택한 것에 비해 베트남 결혼이민자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22.5%)를 선택하였으며(김현희, 2007), 이들의 자녀 또한 타 국적 출신의 결혼이민자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정 아동보다 언어능력에서 더 많은 지연을 보였다(송복선, 2013).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올바른 언어사용을 위하여 매년 이들의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방안(38.4%)을 꾸준히 발표하며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김지혜, 2013).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결혼이민자들이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명순·박현·박찬희, 2014) 특히, 직장인 어머니의 경우 참여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정경희·황상심·배소영·김미배, 2015). 또한 다문화가정의 정책적 지원 방향이 이들을 한국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한 관점으로 편향되면서(김상희, 2015; 이은경, 2013) 결혼이민자들의 올바른 언어사

용에 대한 능동적 참여를 저하시키고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진시키지 못하였다.

2)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성

다문화가정 아동은 결혼이민자 혹은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가진 자의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로(국가법령정보센터, 2015a), 2008년 이후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는 2010년 121,935명(13.2%), 2012년 168,583명(11.5%), 2014년 204,204명(6.7%), 2015년 207,693명(1.7%)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전체 일반 학령인구의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에 비해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초·중·고 학생의 1%를 넘어서고 있다(교육부, 2015). 자녀의 연령별 현황에서도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전체의 56.7%(117,877명)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았으며 만 7세에서 12세 학령기 아동의 경우 27.0%(56,108명)로 보고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5b).

다문화가정이 급증하면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균형적 발달은 주요해결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안전행정부(2015b)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대부분이 제한된 언어(56%)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교우문제(20%), 학습부진(16%)등의 학교 부적응문제로 이어져 다문화가정 아동의 전체 1%가 학업을 중단할 만큼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지연은 읽기, 쓰기 등 교육의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학습능력에 결여를 가져왔으며(김수진, 2015), 이로 인해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전반적으로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성식·김이진·김연경·김민주, 2012).

학교 수업에 대한 낮은 이해도는 소극적 수업참여 및 낮은 학업성취도로 이어졌으며(고홍월·황배향·강유임, 2010), 특히 언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

화가정 아동은 또래 집단으로부터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비율이 전체의 34.1%를 차지할 만큼 높았다(여성가족부, 2015). 이러한 또래관계의 어려움은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게 하여 자아정체성의 혼란, 불안, 소외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초래하였다(황수현, 2015).

윤선영(2016)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낮은 자아존중감의 원인으로 언어발달의 지연과 의사소통의 문제를 들었으며 이러한 언어능력 부족은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이어져 아동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 성한나(2016) 역시 사회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언어발달의 지연을 보고하였다. 김하늘(2014)도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적으로 언어발달 지연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습부진, 또래관계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게 되고 학교 및 사회생활, 정서발달 문제로까지 이어져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의 대부분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언어발달지연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지연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은 학습부진, 또래관계, 자아존중감 등 아동 스스로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가족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아동이 풀어줌으로써 가족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최정혜, 2010).

2.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1)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

언어는 문장들의 집합이며 문장은 어휘들의 규칙적인 배열이다.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어휘를 습득하고 어휘의 배열규칙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김영태, 2015) 다양한 정보자료와 모든 교과들에 대한 이해도 어휘능력과의 관계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제시된 어휘에 관한 이해 없이는 주어진 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오소정·김영태, 2014). 이처럼 한 개인의 어휘능력은 주어진 글을 보다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게 하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기초가 된다. 다시 말해, 어휘는 다양한 표현을 위한 도구이며 적절한 통사, 의미, 화용 등을 구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어휘능력은 아동의 언어능력 발달에 중요한 요소이며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언어능력 중에 하나이다.

어휘능력은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말하기 위해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표현어휘능력(김진화, 2007)과 다른 사람의 말에 사용되는 어휘를 듣고 이해하는 수용어휘능력(박윤주, 2008)으로 구분된다. 표현어휘능력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지연된 어휘능력 중 하나로(황상심·정옥란,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24개월 이후부터 표현 가능한 어휘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여(황상심, 2010), 약 30개월경에 534개의 어휘를 산출하는 일반가정 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산출어휘의 격차가 100개 정도로 매우 미세하였다(Bates, Dale & Thal, 1995). 그러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5세 이전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일반가정 아동과 평균 생활연령에서 5개월 정도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5세 이후부터 15개월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상심·정옥란, 2008).

이후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생활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은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았다(안원석, 2007). 다시 말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 발달격차는 5세 이후부터 급격히 시작되어 초등학교 진학 후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 발달을 위해서는 일반가정 아동과의 격차가 시작되기 전인 만 5세 이전에 조기중재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어휘능력은 표현어휘능력과 다르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가정 아동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두원, 2009).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수용어휘능력이 지체되었으나 2학년은 1학년에 비해 그 차이가 줄어드는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수용어휘능력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김선정·강진숙, 2009). 연령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어휘능력은 큰 폭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여전히 일반가정 아동과 전반적인 수용어휘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양송희, 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어휘능력 지체는 표현어휘능력과 반대로 연령이 어릴수록 더욱 심해지는데 4세-5세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어휘능력은 일반가정 아동 규준에 비해 약 6개월-1년 정도 낮았으며 6세의 경우 격차가 근접하게 줄어들기는 하나 차이를 보였다(유승애, 2009). 만 4세-5세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수용어휘능력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일반가정 아동의 수용어휘능력은 생활연령의 평균보다 높은 수용어휘능력을 보이는 반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평균은 생활연령의 평균보다 낮은 수용어휘능력을 보였다(양성오·황보명, 2009).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어휘능력은 표현어휘능력과 달리 연령이 어릴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격차를 보였으며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어휘능력을 위한 어휘관련 중재가 격차가 가장 심한 어린 연령에서 진행된다면 이후 연령이 증가하였을 때 일반가정 아동의 수용어휘능력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창의성

인간은 생의 초기부터 몸이나 소리를 이용하여 자신을 표현하였으며 아동기에 이르러 보다 적극적으로 보고 느낀 것을 타인에게 언어로 전달하는 훈련을 받게 된다. 그 과정에서 창의성은 풍부한 언어표현을 가능하게 한다(전경원, 2010). 창의성은 '사회와 문화에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물건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의견을 생각해 내는 능력 또는 그것을 기초화하는 인격적 특성' 이라 정의할 수 있다(전경원, 1996). 창의성 발달은 4세-5세 사이에 절정에 이르며(Torrance, 1962) 유아기에 가장 많이 신장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창의성을 길러야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 특히 만 5세는 창의성 발달의 정점을 보이는 시기이자 감소가 시작되는 전환점의 시기(김수정, 2008)로 이 시기에 적절한 창의성 신장을 위한 중재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언어창의성은 말하기와 쓰기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느낀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전경원, 2000). Bonitatibus(1996)는 언어창의성이란 의사소통에 있어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능력이며 개인의 실용 가능한 정보 수준 및 과거 경험의 이해를 통한 재창조 과정이라고 하였다. 즉, 이야기 속의 중요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사건의 인과관계 및 주어진 정보를 통해 성격을 판단한 뒤 사건을 요약 및 재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언어창의성은 창의성 훈련을 통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이다(Torrance, 1962).

언어창의성의 구성요인으로는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을 살펴볼 수 있다. 언어유창성이란 어휘를 가지고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는 양적인 능

력이다(Torrance, 1962). 창의성의 궁극적 목적이 보다 독창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데 있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많이 산출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언어유창성은 일정한 집단 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다양한 어휘로 표현할 때 언어유창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강승희·김정섭, 2003). 언어유창성이 높은 사람은 어떤 문제에도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으며(강정란, 2008), 풍부한 어휘능력과 함께 청자에 대한 집중도가 높으며 문장 수행 형태가 타인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하다(박낭자·조인숙, 2001).

언어독창성은 문제에 대해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언어로 산출하는 능력이다(임홍재·황보영란 2007).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관심, 생각들의 양을 특별한 어휘를 사용하여 획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창의적 사고의 궁극적인 목표(전경원, 2010)로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해결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자기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보려는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가능하다(강정란, 2008). 사고에서의 독창성은 단기적으로 문제 해결의 상황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 인간의 삶을 질적으로 고양시킨다.

언어융통성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이디어를 내는데 한 가지 방법에 집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여 언어로 반응하는 능력이다(임홍재·황보영란, 2007). 다시 말해, 다양한 종류의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며 하나의 접근에서 다른 접근으로 이동하고 여러 가지의 전략을 사용하여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디어의 다양성을 토대로 판단되는 언어융통성은 동일한 대상을 보고 타인과는 다른 관점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언어융통성이 높은 사람은 두 개의 명사를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개념을 만들 때 한 두 가지의 주제로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

을 탈피하고 다양한 주제적 관계를 이용하여 해석하려 한다(강승희·김정선, 2003).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어휘의 다양성을 중요시 하는 언어융통성은 어휘 중에서도 관사, 전치사, 접속사의 수를 의미한다.

언어능력에 다소 지체를 보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언어창의성 점수에서 일반가정 아동보다 평균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유한나, 2015). 특히, 언어창의성의 하위 요인인 언어유창성과 언어독창성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서, 2011; 유한나, 2015).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의 언어창의성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언어창의성의 하위요인을 고려한 중재의 시행이 필요하다.

3)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중재

교육부(2010)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소외방지와 사회통합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지원정책으로 한국어반 운영,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등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인 '한국어반'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습결손 방지를 위하여 학교의 정규 수업이 끝난 방과 후 시간에 한국어 및 부족한 교과에 대한 지도를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며 학교에서 시행되는 만큼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교육부, 2010).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한국어 교육 교재 개발 및 아동의 지도를 담당할 전문 교사 양성을 위해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이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김영숙·우정환, 2010).

그러나 공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지원실태(윤경동, 2011)를 조사한 결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연수 프로그램은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여 초등학교 국어교육중심의 교육연수로 바뀌었으며, 다

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향상을 위한 교재는 다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문화에 편중된 내용으로 구성되면서 아동의 학습욕구를 자극시키지 못하였다(김상희, 2015). 또한 학교 내에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인 ‘한국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지도한 경우도 25.4%에 불과하였다(윤경동, 2011).

이러한 결과는 일선의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언어적 지원이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교육에서 소외된 상태나 다름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외의 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취학 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조기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지연이 취학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된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언어지연을 겪고 있는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교실 및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다누리, 2015), 민간비영리 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언어 두 개 기쁨 두 개’ 프로그램도 미취학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어 동화책 읽기를 시행하여 효과적인 언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였다(세이브더칠드런, 2014). 이러한 언어발달 지원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자신감 회복 및 학습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키며 그 효과와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언어발달지원 프로그램 이후 정상발달로 종결된 아동이나 기간 만료 또는 부모의 사정에 의해 종결된 아동을 추적조사한 결과, 다수의 아동이 또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황상삼·배소영·김미배, 2015).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언어프로그램의 내용이 단순히 읽고 쓰는 등의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지면서(김성옥, 2013) 아동

의 학습능률을 높이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습득된 어휘를 지속적으로 기억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언어습득에 있어 아동의 흥미와 동기는 학습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 수 있다. 이를 위해 미술(김가현, 2016), 무용동작(김미려, 2012), 문학(김주원, 2012; 선애순·권순황, 2010), 원예(권희진, 2012), 연극(한은숙, 2013)등 여러 예술치료 분야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흥미를 높여 언어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김가현(2016)은 임상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밝혔으며 김미려(2012)는 신체경험, 사회경험 등의 다양한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동작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발적 참여와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선애순과 권순황(2010)의 연구에서도 그림동화책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권희진(2012)은 식물심기, 텃밭활동 등의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능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아동의 동기를 유발시켜 흥미를 가지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예술치료는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효과를 인정받았으나 아동이 자발적으로 발화하고 능동적으로 언어를 사용하여 활동하기보다는 치료사가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거나 질문을 하면 대답하는 방식의 수동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활동이 진행되었다는 아쉬움이 있다(전수연, 2014).

음악은 리듬, 선율, 가사 등을 이용하여 언어적 자극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휘를 넣어 발화하도록 유도하는 특성이 있다. 최진영(2015)은 언어적 지시 없이 단순한 리듬에 어휘를 넣어 부르는 가창활동이 아동의 수용언어능력에 효과적임을 입증하였으며 홍은의(2011)는 스스로 창작하고 만들어 나아가는 음악활동이 아동의 조음음운능력 및 수용어휘능력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노래 부르기, 노래 만들기, 악기연주, 음악극 활동은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자발적 표현의 촉진과 습득된

어휘를 지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하였다(김은선, 2010; 차명선, 2010). 따라서 아동의 흥미를 유발시켜 자발적 참여를 촉진시키고 능동적 발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음악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재 매체임을 의미한다.

3. 노래 만들기를 활용한 음악치료

노래는 가사에 곡조를 붙여 목소리로 부를 수 있게 만든 음악으로(Schmidt, 1983),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화되고 매우 친숙한 음악적 활동이다(정현주, 2014). 노래는 다양하고 보편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어 삶의 많은 주제들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목적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이 가능하다(Baker & Wigram, 2008). 노래의 대표적인 요소, 즉 가사, 리듬, 선율 등은 내담자의 필요와 치료목적에 따라 특정 요소들이 더 강조되거나 덜 강조되는 등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다.

언어의 패턴이나 강세를 연습할 수 있는 선율은 발화가 어려운 아동을 자극시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한다(한성은, 2006). 또한 선율의 악구는 언어의 문장과도 유사하여 악구를 이용하여 언어의 구조적 패턴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는 부적절한 말의 감소와 적절한 말의 증가를 가능하게 한다(Lynn, 1988). 리듬은 아동이 말의 시작과 흐름, 적절한 속도 등을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어 더듬거리지 않고 자신의 말의 속도와 패턴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한다(정현주, 2014). 이는 아동이 특정 상황 혹은 특정 인물 앞에서 더듬거리지 않고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후 성장해나가는 동안 자신감있는 언어표현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노래의 가사는 부족한 언어의 습득뿐만 아니라 조건적 상황에 대한 의사소통기술을 경험하게 하여 언어·의사소통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송성민, 2006). 노래를 부르는 순간 아동은 언어적 지시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언어훈련에 참여하게 되며(배현주, 2014), 노래 가사를 통해 평소에 발음하지 않거나 발음하지 못했던 낱말들을 시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의사소통을 경험하게 된다(황지연, 2001). 다시 말해 언어를 촉진시키는 노래 각각의 요소들은 아동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현주(2014)는 생활연령 만 4세-5세의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목표어휘가 포함된 익숙한 노래들을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 아동의 표현 및 수용어휘 발달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O' Loughlin(2000)의 연구에서도 역시 만 3세-10세 자폐아동 44명을 대상으로 노래 중심 음악치료를 시행한 결과, 자폐아동의 전반적인 언어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고기능 자폐아동 14명은 표현어휘의 수가 큰 폭으로 향상되었다. 송성민(2006) 역시 음악치료 시행 이후 1주일의 휴지기를 지나 추후 탐색을 한 결과, 아동의 향상된 어휘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노래가 아동의 표현어휘능력 및 기억력을 발달시키는데 효과적인 중재방법임을 의미한다.

1999년부터 2012년까지 발표된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관련 국내 학위논문 47편을 살펴보면 구어발달, 어휘능력 향상 등 언어능력을 목표 영역으로 한 논문이 전체의 21%(10편)로 대부분 노래와 관련된 노래 부르거나 선율을 통한 언어훈련을 중재로 사용하였다(이진영, 2012). 청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음악치료를 적용한 연구에서도 언어능력 향상 및 어휘의 적절한 사용을 위하여 70%(3편)이상이 노래를 활용한 중재를 사용하였다(김세림, 2014). 이처럼 언어능력 향상을 위해 사용된 노래는 언어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로 이용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고, 노래의 치료적 가치를 활용하는 근거로 기능한다.

노래 만들기의 정의는 연구자마다 그 개념 및 정의의 범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인 정의 요소는 치료사와 내담자가 함께 치료적 목적을 위해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Baker & Wigram, 2008). 노래 만들기는 노랫말 채우기(fill-in-the-blank), 개사하기, 노래 패러디, 즉흥노래 만들기, 작사·작곡하기 등의 기법으로 내담자의 필요에 따라 사용된다(정현주, 2014). 노랫말 채우기는 노래 만들기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기법으로 기존의

노래를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가사에 빈칸을 남겨놓아 내담자가 단어를 채우게 하는 방식이다. 이 기법은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에게 좀 더 구체적인 구조를 제공하여 노래 만들기의 방향을 제시하며 노래 만들기 과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Baker & Wigram, 2008).

노랫말 채우기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인 노래 패러디는 기존의 노래를 주 소재로 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형-재창작하는 것을 의미한다(Baker & Wigram, 2008). 노래 패러디는 노랫말 채우기와 달리 문장과 문장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으로 내담자의 독특한 개별성과 창의성이 반영되는 치료 활동이다(정현주, 2014). 작사하기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짧은 글이나 시의 형태로 적은 뒤 선율을 붙여 곡을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선율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며 가사가 없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인하여 다양한 어휘들을 자신만의 언어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Baker & Wigram, 2008).

1) 어휘능력 향상을 위한 노래 만들기

노래 만들기는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과정에서 어휘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해주며,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 노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노래의 주제나 가사에 따라 아동은 방향, 위치, 크기, 시간 등의 상대적 개념은 물론, 소리를 중심으로 구별할 수 있는 의성어와 의태어 등의 다양한 어휘를 습득할 수 있다(정현주, 2014). Davis, Gfeller와 Thaut(1992)는 부적절한 어휘의 사용을 줄여 앞, 뒤 맥락에 맞는 올바른 어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래 만들기가 궁극적으로 아동의 어휘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중재임을

밝혔다.

노래 만들기 활동 시 새로운 어휘를 그룹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은 습득된 어휘의 재탐색을 가능하게 하며(Jerling, 2013), 이는 16명의 만 2세-5세의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응답형식의 노래 만들기를 시행한 Hoskins(1988)의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표현 및 수용어휘의 수가 큰 폭으로 향상되었으며 특히, 리듬, 가사, 선율 등의 음악적 요소들과 그룹에서의 상호작용이 습득된 어휘의 지속적인 유지를 가능하게 하였다.

송성민(2006)은 자폐아동의 어휘능력 향상을 위하여 가사 중심의 노래 만들기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아동은 표현어휘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수용어휘의 향상에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뇌병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노래 만들기 활동을 시행한 송성민(2010)도 노래 만들기 활동이 뇌병변 장애아동의 언어적 자기표현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었으며 노래 만들기 활동이 자기표현과 관련한 적절한 의사소통의 향상과 부적절한 의사소통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2) 언어창의성 향상을 위한 노래 만들기

음악은 사람들의 상상에서 나온 산물이다. 즉 인간의 마음을 조정하여 소리로 환상을 만드는 것에서 음악이 나온 것이다(Webster, 1990). 음악은 전체 뇌를 사용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음악 활동을 통한 창조적 경험은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창의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송윤희, 2000). 음악은 그 자체만으로도 확산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며 음악에 음악적 활동이 더해지면 발달과 관련된 대부분의 영역에서 창의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Balkin, 1985; Webster, 1990). 음악활동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음악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연주를 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Balkin, 1995; Gardner, 1983).

박소영(2004)은 즉흥적으로 만들어가는 음악활동이 아동의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만 4세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20명은 음악활동을, 나머지 20명에게는 동화토론 활동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음악활동을 시행한 실험집단이 동화토론을 한 비교집단보다 창의성에 있어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며 창의성의 하위요인인 유창성과 독창성에서도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김성은(2003)도 음악활동이 아동의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만 5세-6세 아동 12명을 대상으로 음악치료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창의성 점수는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내었으며 하위요소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에서도 음악활동이 효과적인 중재임을 입증하였다.

음악활동의 하나인 노래 만들기는 작은 아이디어를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Baker & Wigram, 2008)으로 다른 음악활동보다 더 많은 창의성을 허용한다. 노래 주제에 따라 가사, 음색, 리듬 등이 서로 관련되어 즉흥적으로 가사를 바꿔 가창하는 것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음악활동 중 하나이다(Webster, 1990). 또한 이처럼 정해진 노래 가사 외에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어휘를 노래가사에 넣어 새롭게 불러보는 것은 일반적인 가창에서 벗어나 색다른 방법으로 창의성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노래 만들기는 아동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의성 증진에 매우 효과적이다. 노래 만들기의 기법인 노랫말 채우기는 유창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유창성의 향상은 이야기의 재구성 및 아동의 창작 능력을 증가시킨다(배진나, 2005). 특히 자유로운 분위기에 다양한 가사를 제시하며 기존의 노래를 바꾸어 부르는 것은 은연 중에 아동에게 융통성있는 생각을 갖게 하고 스스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어 확산적 사고에 도움을 준다(최은선, 2004; Wolf, 1992). 결과적으로 노래 만들기는 반복적이며 획일적으로 국한되어 있던

아동의 표현 방법을 음악적 재구성을 통해 다양한 언어적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동의 창의성 향상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4. 아동을 위한 동요

1) 동요의 정의 및 유형

어린이를 위하여 동심을 바탕으로 지어진 동요는 문학 장르 중 하나인 정형시로 아동 수준에서의 문화, 생활, 삶이 담겨져 있다(배현주, 2014). 동요는 아동생활의 흐름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아동이 노래를 통하여 생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순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동요가 아동의 순수한 내면의 정서를 표현한 거짓 없는 생활기록이며 어른과 아동 모두를 따뜻한 정감과 아름다운 동심을 느끼게 해주는 노래라는 것이다(김민정, 2016). 다시 말해 동요란 아동의 순박한 감정을 표현한 구어형태의 노래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즐겁게 부르면서 동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요는 구전되어 내려오는 전래동요와 아동의 생활 중심으로 작곡가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동요로 구분된다(김민정, 2016). 전래동요는 오랜 세월동안 모국어의 말과 리듬을 아동의 정서에 맞게 다듬은 노래이다. 한국의 오랜 역사와 함께 구전되어온 전래동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아동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고 불러온 노래이다(이숙희, 2002). 아동에 의해 오랫동안 전승 전파되어 내려온 전래동요는 협동적인 놀이에 기초를 두고 있어 아동의 사회적, 신체적 발달을 도울 수 있으며(Russell, 1991), 노래를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만들어가는 구성은 창의적 표현을 향상시킬 수 있다.

창작동요는 19세기 말 서양 선교사들에 의하여 서양음악이 보급되면서 서양 작곡가들에 의하여 만들어졌다(전인옥·이숙희, 2008). 서양 음악 형식으로 작곡된 창작동요는 선율과 가사를 통하여 음악적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주체적으로 활동하게 격려함으로써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이숙희, 2002). 창

작 동요의 대부분이 어른들이 아동을 위해 지은 노래로 작곡되었으나 아동이 직접 노래가사를 쓰거나 창작을 하는 등 아동의 참여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안진현, 2007). 창작동요는 정서와 음악성 발달을 가능하게 하며(김혜정, 2006), 친구들과 함께 부르는 과정을 통해 협동심과 사회성을 발달시킨다(전인옥·이숙희, 2008). 또한 창작동요는 아동의 뇌기능을 자극시켜 상상력과 표현력의 성장을 돕는다(Cullinan, 1989). 창작동요는 내용에 따라 천제나 기후, 동식물 등 놀이를 위하여 부르는 동요, 성인이 아동의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동요, 내용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표현한 이야기 중심의 동요와 어른들이 불러주는 자장노래나 아동에게 말을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 들려주는 동요 등이 있다(김보은, 2008).

2) 동요의 기능

아동을 위한 동요는 단순한 리듬, 아름다운 선율, 아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지어진 가사, 반복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리듬은 박자 위에서 움직이는 길고 짧은 소리들의 묶음으로(김진영, 2009), 음악의 요소 중 가장 느리게 습득되고 표현된다(박소연, 2004). 동요의 리듬은 단순하고 반복적이어서 아동이 규칙적인 박자에 따라 안정감을 느끼며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는 아동이 노래를 부를 때 보고 부르기가 아닌 듣고 배우는 방법으로 터득하므로 규칙적이고 일관성 있는 리듬패턴은 노래 가사를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도와준다. 당김 음이나 붓점 리듬과 같은 경쾌한 리듬은 자연스럽게 신체적 반응을 유도하여(Cullinan, 1989; Rosenblatt, 1994), 아동의 흥미를 자극시키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선율은 높이가 다른 음들이 시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다. 즉, 선율은 음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또는 반복되면서 리듬과 함께 연속되어 흐르는

것을 의미한다(장은주, 2013). 동요의 선율은 아동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음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반음계적 선율보다는 온음계적 선율로 이루어져 있어(이옥주, 2015), 아동이 거부감 없이 노래를 시작할 수 있다. 노래를 듣고 선율에 따라 자신의 음정을 맞추어 나가면서 아동은 소리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며 단순히 어휘들을 나열하여 암기하는 것보다 선율과 함께 새로운 어휘를 넣어 불러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어휘습득을 가능하게 한다.

동요의 가사는 내용에 따라 사물이나 동식물, 풍경을 묘사하는 노래, 이야기를 담은 노래,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한 노래, 일상을 담은 노래, 율동을 위한 노래 등 다양한 노래가사가 있다(갈향숙, 2000). 동요의 가사는 아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따라 접해보지 못한 상황이나 어휘들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간접경험을 통해 새로운 어휘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놀이에서 사용되는 동요의 가사는 아동이 사용하는 표현 어휘보다 더 높은 수준의 표현 어휘를 익히는 계기가 되어 아동의 언어발달 향상에 효과적이다(김성화, 2004).

동요의 형식은 너무 길지 않은 8마디인 한 도막 형식이나 12마디인 작은 세 도막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유진영, 2016). 아동의 경우, 연령이 어릴수록 주의집중을 유지하기가 어렵기때문에(김희수, 2013) 짧고 간단한 형식으로 이루어진 곡은 아동의 흥미를 자극시킬 수 있다. 동요의 형식 중 이야기를 노래한 곡이나 묻고 답하는 응답형식의 곡은 아동이 의사소통에서 경험해야하는 구조적 패턴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아동이 의사소통 과정을 직접적으로 연습해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대화가 가능하게 한다. 또한 반복되는 악구로 이루어진 안정적인 구조는 아동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어휘를 익히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Cullinan, 1989).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서도 동요는 신체운동·건

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의 교육적 매체로 사용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3). 교육적 매체로서 동요는 활동의 동기를 유발시켜 주의 집중을 가능하게 하며 동요의 가사는 교육 활동의 주요 개념 및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김민정, 2016). 또한 동요를 통해 내재되어 있는 음악적·문학적 가치를 학습할 수 있어 리듬, 음색, 빠르기 등과 같은 음악적 개념뿐만 아니라 가사에 담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동요는 반복적 운율, 새로운 어휘의 경험, 이야기 전개나 내용에 대한 반복 학습을 통해 형식적인 언어학습이 아닌 아동의 흥미를 높여 능동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아동의 언어발달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된 음악치료 연구에서도 아동에게 동요를 사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권세미, 2009; 김미경·최성규, 2008; 김유선, 2014; 김은선, 2010; 박경숙, 2015; 송성민, 2006; 이정미·정규진·최애나, 2011; 장인숙, 2014). 김미경과 최성규(2008)는 단순 언어발달지체아동을 대상으로 동요를 활용한 음악치료를 시행한 결과, 수용·표현언어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김은선(2010)은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동요를 활용한 음악치료를 시행한 결과, 평균적으로 수용언어에서 5개월, 표현 언어에서 9개월의 향상을 보고하였다. 김지연(2003) 또한 다운증후군 아동을 대상으로 동요를 사용하여 음악활동을 시행하였으며 동요를 활용한 음악활동이 아동의 수용, 표현, 조직언어향상에 효과적임을 밝혔다.

이처럼 동요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교육적 매체로 활용되고 있으며, 언어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치료적 매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동요가 예술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영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한 적합한 중재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5.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다문화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 음악치료연구는 국내 연구의 출현 이전부터 국외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미국은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로, 다문화 관련 음악치료는 연구주제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음악치료의 효과(Choi, 2010; Jespersen & Vuust, 2012) 다문화를 고려한 회기의 중요성(Toppozada, 1995)과 다문화에 대한 음악치료사의 인식(Sloss, 1966)등 여러 영역으로 확장되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연구되고 있다.

Choi(2002)는 불안, 회피, 외로움 등 부정적 감정과 사회적 고립, 가족과의 분리, 학습에 대한 어려움 등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새터민 청소년 9명을 대상으로 음악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음악치료가 이들의 사회적응능력 및 부정적 감정을 해소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Jespersen과 Vuust(2012)의 연구에서도 불안으로 인하여 숙면을 하지 못하는 새터민을 대상으로 음악 감상 위주의 음악치료를 시행한 결과, 음악치료가 새터민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었음을 밝혔다. 이처럼 국외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음악치료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들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다문화가정 관련 음악치료를 살펴보면 2008년을 시작으로 2년 후인 2010년까지 총 11편의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이후 3년간 평균 7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박민정, 2014).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목표영역 중 언어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는 미취학 아동이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김경언, 2013; 이경미·정규진·최애나, 2011; 차명선 2010; 최애나, 2012; 최진영, 2015), 이는 언어발달의 결정적시기인 아동기에 적절한 중재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가장 빈번하게 적용된 음악활동

으로는 노래 관련 활동이 가장 많았다. 김경언(2013)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력 발달과 자음정확도의 향상을 위하여 노래 부르기 활동을 시행한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수용어휘능력, 자음정확도 모두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최애나(2012)의 연구에서도 노래 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발달 및 표현능력 증진에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이외에도 다수의 연구에서 노래 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미·정규진·최애나, 2011; 최진영, 2015).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래와 함께 악기 연주, 신체 동작 등의 음악중재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그 효과는 입증되었다(성한나, 2016; 주효주, 2012; 차명선, 2010). 언어, 리듬, 운율, 동작 등의 오르프 음악활동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효과적이며 아동의 목소리 크기, 발음, 어휘의 수 모두에 변화를 가져왔다(차명선, 2010). 또한 노래 부르기, 노래 만들기, 악기연주, 음악극 활동 중심의 음악치료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성한나, 2016; 주효주, 2012), 특히 음악창작극 활동은 또래가 연주하고 가창하는 것을 지켜보며 미소를 짓거나 격려하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자신있게 표현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하여 자기표현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향상을 위해 시행된 음악치료 중재의 대부분은 가창을 사용하였으며(박민정, 2014), 노래 만들기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단순히 정해져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고 직접적으로 창작하여 표현하는 것은 아동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향상을 준다(Hoskins, 1988). 노랫말 개사하기, 노래 만들기 등을 언어치료 분야에서 사용하여 어휘능력 향상에 효과를 입증한 연구들(김주선, 2008; 고이순, 2011; 공종숙, 2008; 김미경·최성규, 2008; 김소

정, 2009; 빈경화, 2013; 손경아, 2007; 양미자, 2008; 이경희, 2007; 이효숙·심성경·백영애·김경의, 2004; 최은선, 2004)은 다수 있었으나 음악을 좀 더 포괄적이고 전문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음악치료사가 노래 만들기 요소들을 내담자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세밀하게 적용한다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과 언어창의성 향상에 유의한 치료적 중재로 기능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실에 다니는 결혼이민자의 자녀 만 4세-5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센터내의 언어발달지도사 2명과 사전 면담을 통해 남·여 아동 7명을 유의표집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 선정 기준은 시각 및 청각, 감각기관에 장애가 없으며 한국웍슬러유아지능검사(K-WPPSI)결과 언어성지능이 80점 이상에 속하며 인지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는 단순 언어발달지체 아동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지필 검사 및 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남아 5명(71.4%), 여아 2명(28.6%)으로 모두 출생순위가 첫째(100%)였다. 연령별로는 만 4세 아동이 3명(42.9%), 만 5세 아동이 4명(57.1%)이었으며 모두 베트남 결혼이민자 여성을 어머니로 둔 자녀들로 구성되었다. 참여한 아동의 가정환경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대다수가 고등학교 졸업(85.7%)으로 생산직(57.1%)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85.7%)였다.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연령은 25세-29세(71.4%)사이였으며 학력 또한 중학교 졸업(71.4%)이 많았다. 어머니의 현재 직업으로는 가정주부(57.1%)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은 5년-7년(85.7%)동안 한국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에서의 주 양육자는 어머니(100%)로, 어머니의 한국어 능숙도는 초급(71.4%)정도였으며 주로 가정에서 아동과 한국어(71.4%)를 사용하여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표 III-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교적 동질하다고 볼 수 있다.

<표 Ⅲ-1> 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성별	남	5(71.4)
	여	2(28.6)
연령	만 4세	3(42.9)
	만 5세	4(57.1)
어머니 출신국가	베트남	7(100.0)
출생순위	첫째	7(100.0)
주 양육자	어머니	7(100.0)
어머니 나이	25-29세	5(71.4)
	30-34세	2(28.6)
아버지 학력	중학교	1(14.3)
	고등학교	6(85.7)
어머니 학력	중학교	5(71.4)
	고등학교	1(14.3)
	대학교	1(14.3)
아버지 직업 (직종)	사무직	2(28.6)
	생산직	4(57.1)
	기술직	1(14.3)
어머니 직업 (직종)	전업주부	4(57.1)
	사무직	2(28.6)
	전문직	1(14.3)
월 평균수입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6(85.7)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1(14.3)
거주기간	4년 미만	1(14.3)
	5-7년	6(85.7)
한국어 능숙도	초급	5(71.4)
	중급	2(28.6)
사용언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와 한국어	2(28.6)
	한국어	5(71.4)
	계	7(100.0)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 활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과 언어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단일 집단 사전-사후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의 설계로 이루어졌다. '단일 집단 사전-사후'의 설계는 <표 III-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의표집된 전체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검사와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 활동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표 III-2> 연구 설계

실험집단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R	01	X	02

R : 실험 집단

01 : 사전 검사 (수용·표현 어휘능력 검사, 언어창의성 검사)

02 : 사후 검사 (수용·표현 어휘능력 검사, 언어창의성 검사)

X : 실험 처치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

3. 측정도구

1) 수용·표현 어휘능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 REVT)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용·표현 어휘능력 검사(REVT)를 사용하였다. 수용·표현 어휘능력 검사는 표준화 도구로 김영태·홍경훈·김경희(2009)가 만 2세 6개월부터 만 16세 이상 성인의 수용 어휘능력(REVT-R)과 표현어휘능력(REVT-E)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이다. 검사방법은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연습문항을 실시한 후 그림 검사자료를 보며 검사자의 질문에 대상자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문항은 1점씩 배점되며 연습문항 실시 후 확립된 기초선을 기준으로 기초선보다 낮은 문항들은 맞은 것으로 간주하고, 최고한계선보다 높은 문항들은 틀린 것으로 간주하여 원점수를 계산한다. 이 검사는 대상자의 어휘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어휘발달 연령을 산출할 수 있으며 획득점수를 토대로 발달 수준을 백분위 점수로 제공하여 동일 생활연령대에 대한 대상자의 상대적 어휘발달 수준을 제시해준다. 이 검사의 신뢰도(Cronbach- α)는 REVT-R이 .82, REVT-E가 .86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김영태·홍경훈·김경희, 2009).

2) 언어창의성 검사(K-CCTYC)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경원(2000)이 제작한 만 4세-6세용 유아 종합 창의성 검사를 사용하였다. 유아 종합 창의성 검사는 표준화 도구로 언어, 도형, 신체영역에서의 창의성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영역에서의 창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언

어창의성에 해당되는 빨간색 연상하기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언어창의성의 하위 요인인 언어유창성, 언어유통성, 언어독창성을 측정하는 검사로, 빨간색을 보고 연상되는 물건이나 생각, 느낌에 대해 말하거나 적어보는 검사이다. 채점방법은 채점표를 참고하여 성별과 연령에 따라 0점 반응은 0점으로, 그 외 나머지 반응은 1점으로 처리하여 원점수를 계산한다. 이 검사도구의 신뢰도(Cronbach- α)는 .84이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6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전경원, 2010).

4. 연구절차

1) 동의서 및 설문지

본 연구의 참여자인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 활동 시행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내용 및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내용을 포함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 참여자의 보호자에게 배포하고 수거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에는 참여자의 성별, 연령, 어머니의 출신국가, 형제관계, 주 양육자, 부모연령, 부모직업 등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2) 사전검사

어휘능력과 언어창의성 사전검사는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 활동을 실시하기 1주 전인 2015년 3월 14일에 연구자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언어발달지도사 1명에 의하여 기관내의 가족 참여실에서 실시되었다.

3) 실험

본 연구의 실험은 사전검사에 이어 2015년 3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8주간 실시되었다.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는 주 1회 씩 총 8회기로 진행되었으며, 소요시간은 40분으로 인사하기(5분), 활동

(30분), 마무리(5분)로 매 회기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4) 사후검사

어휘능력과 언어창의성 사후검사는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 활동이 종결되고 1주 후인 2015년 5월 16일에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5.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 활동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과 언어창의성 향상을 위한 치료 목적 성취를 위하여 음악과 언어의 발달단계(김영태, 2015; 전인옥·이숙희, 2008)를 근거로 하여 동요와 주제, 어휘를 선정하여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 활동을 구성하였다.

1)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 구성

(1) 음악과 언어 발달 단계

아동은 출생이후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시작으로 웅얼이, 소리내기 등을 하며 소리에 점차적으로 익숙해진다(정국희, 2008). 2세경이 되면 소리에 대한 변별력이 생겨 노래의 몇 소절을 따라 부를 수 있게 되며(김혜경, 1996) 3세경에는 단순한 절로 된 노래를 박자에 맞춰 부를 수 있게 된다. 이후 4세-5세에 이르면 아동은 노래 한 곡의 완창이 가능하며 리듬과 음의 고저를 정확히 사용하여 간단한 선율과 가사를 창작할 수 있게 된다(김혜경·김송옥, 2001).

아동의 언어발달도 이와 비슷하게 비언어적 형태의 의사소통에서 전언어적 형태의 의사소통으로 변화하며 단 단어 형태의 말을 시작하게 된다. 2세에 이르면 간단한 지시를 듣고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이후 어휘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평균 300개 정도의 단어를 산출하게 된다(김영태, 2000). 아동은 3세-4세경 기본적인 문법구조를 지닌 문장들을 이해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복잡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이재강, 2002). 이와 같이 음악과 언어의 발달단계는 매우 유

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발달단계의 유사성은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 활동의 동요 및 주제선정에 기준이 되었으며 이는 활동구성의 타당성을 뒷받침해준다. 음악과 언어의 발달단계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언어발달 및 음악발달의 특성

연령	언어발달 특성	음악발달
0-6 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소통전달을 위해 울음, 웅얼이 등의 소리들에 의존 전언어적 상호작용인 음성놀이의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아(약3개월)때부터 소리에 반응하기 시작 웅얼이(vocal chant, 3-4마디) 감각 운동적으로 소리를 경험, 생산
6-12 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복적인 자음과 모음의 연습 규칙적인 웅얼거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박자 리듬에 반응(모태의 박동) 음의 고저에 반응하며 선율이 있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
2세 (12-24 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의 말을 모방하기 시작 어휘의 확장(300-500개) 간단한 문장을 이해하고 두 단어 문장 형성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한 리듬을 모방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음과 리듬 선호 소리의 변별력이 높아짐
3세 (24-36 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단순 문장에서 접속사, 조사 등을 사용한 긴 문장의 사용이 가능 문법규칙들을 이용하여 단순한 문장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발적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며 노래에 맞추어 동작 표현 음의 고저, 강도, 속도에 따라 목소리를 변화시키고 연속적인 리듬 모방 가능
4세-5세 (36-60 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법에 맞고 길이가 긴 문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주위의 가까운 사람과 능숙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 높아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짧은 노래를 끝까지 부를 정도로 가창 능력이 확장됨 악보 읽기활동이 가능하며 노랫말을 바꿔서 부르는 창작활동을 선호

-
- 끝말잇기, 수수께끼 등의 말 놀이를 좋아하며 동화, 동요를 지어서 타인에게 들려줄 수 있음
-

출처 : 김영태 (2015), 전인옥·이숙희 (2008)

(2) 동요 선정 기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요 곡의 선정 기준은 정현주(2014)의 어휘 확장을 위한 곡 선정기준 중 직접 만지거나 표현이 가능한 명사와 동사가 포함된 곡과 오정숙·권정희(2009)의 음악발달에서 가창 발달단계, 김영태(2015)의 언어발달 중 어휘 발달단계를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아동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친숙한 곡으로 음폭이 크지 않고 선율과 리듬이 단순하며 반복되는 악구가 많은 곡, 노래 가사를 창작할 수 있는 열린 결말의 가사내용과 활동 중 직접 만질 수 있거나 표현할 수 있는 명사나 동사가 포함된 곡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가사의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제외하였다. 이를 토대로 만 4세-5세 아동에게 익숙하고 흥미로운 10곡의 동요를 선정하였다.

(3) 주제 선정

효과적인 어휘 학습 방법 중 주제를 중심으로 한 활동은 다양한 어휘 표현을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 학습이 주제와 연관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미의 이해와 기억에도 도움이 된다(오승희, 2006). 또한 주제중심 활동은 문화적으로 낯선 학습 주제라 하더라도 일상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고 동기를 지속시킬 수 있다(Halliwell,

1992). 이러한 원리에 부합하여 제 7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주제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김지영, 2008), 여러 연구들을 통해 주제별 학습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이선경, 2011; 조미선·박선호, 2016). 따라서 주제에 맞는 동요를 선정하고 학습하는 것은 아동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으며, 상황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어휘능력의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주제 선정 기준은 발달과정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므로 만 3세-5세 연령별 누리과정(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3)의 주제를 기준으로 하였다. 누리과정의 주제는 유치원·어린이집과 친구/ 나와 가족/동식물과 자연/ 우리 동네/ 건강과 안전/ 생활도구/ 교통기관/ 우리나라/ 세계 여러 나라/환경과 생활/ 사계절 등 총 11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8년 경력의 어린이집 교사 2인의 자문을 통해 아동이 일상생활에 많이 접할 수 있는 주제인 나와 가족/친구/동식물과 자연/생활도구를 적용하였다.

(4) 목표 어휘 선정

매 회기별 사용되는 목표 어휘는 수용·표현 어휘능력 검사(REVT)의 어휘 중 윤경선·이유미(2014)의 유아 한글 교육용 어휘 기준에 근거하여 일상생활과 또래관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 80개 이상의 어휘를 특수교사, 언어치료사, 어린이집 교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인과 함께 선정하였다. 회기별 목표어휘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회기별 목표어휘

회기	목표어휘
1	손, 어깨, 무릎, 발, 팔꿈치, 다리, 목, 엉덩이, 손가락, 팔, 발가락, 배, 가슴, 얼굴, 눈, 코, 입, 귀, 머리, 머리카락, 혀, 이마, 이/이빨
2	소방관, 경찰관, 선생님, 간호사, 가수, 집배원, 은행원, 의사, 약사,

3	화내다, 슬프다, 웃기다, 행복하다, 놀라다, 졸리다, 심심하다, 사랑하다, 즐겁다, 짜증나다.
4	목욕하다, 운전하다, 인사하다, 기어가다, 자르다, 흘리다, 누르다, 뉘시하다, 배달하다, 먹는다.
5	도둑, 도장, 레몬, 레미콘, 미술, 파랑, 파도, 솔방울, 라디오, 라면, 시냇물, 시소
6	북, 쿵쿵, 찌가찌가, 덩동덩동, 찰찰, 칭칭칭, 짹짹, 탬버린, 트라이앵글, 바이올린, 피리, 호루라기
7	음메음메, 소곤소곤, 뽀뽀뽀, 개굴개굴, 어흥, 깡충깡충, 스스스스, 멍멍, 야옹, 악악 등
8	배부르다, 뽀족한, 연기, 폭포, 어부, 그릇, 춥다, 타다, 싸우다, 과자, 바다

2)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 내용

(1)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의 회기 구성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과 언어창의성 향상을 위한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 활동은 탐색(1-2회기), 전개(3-6회기), 종결(7-8회기) 등 총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각 회기마다 단계별 목표는 회기별 주제와 음악과 언어의 발달단계(김영태, 2015; 전인옥·이숙희, 2008)를 참고하여 설정하였으며 사용된 악기는 아동이 시각, 청각, 촉각 등 다감각적으로 접근하여 보다 쉽게 어휘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노래 가사의 내용과 비슷한 악기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타악기의 경우, 청각적으로 들리는 소리를 언어적으로 재해석해서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핸드벨의 사용은 노래가사의 계이름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각 회기의 단계 및 목표는 <표 III-5>과 같다.

<표 III-5>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의 단계별 목표 및 음악활동

단 계	주제	회 기	목표	음악 활동
탐 색	나와 가족	1	치료사와 아동, 아동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 신체어휘이해 및 표현	노래가사 채우기 및 개사 노래 부르기
		2	직업 및 기관에 대한 이해 언어유창성 증진	노래가사 채우기 및 개사 노래 부르기
전 개	친구	3	감정어휘의 이해 및 표현	노래 패러디 및 개사 노래 부르기
		4	동사어휘의 습득 및 문답법의 이해	노래가사 채우기 및 개사 노래 부르기
	생활 도구	5	형용사 및 부사어휘의 습득	노래 패러디 노래 부르기 및 핸드벨 연주
		6	독창성 및 의성어, 의태어의 습득	노래 가사 채우기 및 개사 노래 부르기 및 타악기 연주
종 결	동식 물과 자연	7	청각적 자극에 대한 언어융통성 증진	노래 패러디 및 개사 노래 부르기
		8	독창적 표현 및 어휘의 의미 이해	작사 노래 부르기

본 활동은 단계별 주제 및 목표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음악활동과 선정된 노래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탐색단계인 1회기와 2회기는 그룹 구성원간의 관계형성 및 신뢰감을 형성하는 단계로 협동적인 신체활동을 통한 친밀감을 목표로 구성하였다. 아동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노래를 사용하여 긴장이완 및 활동에 흥미를 높이도록 하였다. 3회기와 4회기는 다양한 상황과 감정들에 관한 어휘학습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동사 및 문답법 형식의 이해를 목표로 하였다. 3회기의 경우, 가사에 자신이 느낀 감정단어를 넣어 불러봄으로써 조건적 상황에서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4회기에서는 문답법 형식의 가사를 통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맥락에 맞는 올바른 어휘

의 사용을 유도하였다.

5회기는 품사별 사용 빈도 중 가장 낮은 형용사 및 부사 어휘를 앞 글자가 정해진 노래가사에 넣어 불러봄으로서 특징을 파악하고 보다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6회기는 의성어, 의태어 및 독창적 표현을 목표로 하였다. 5회기와 6회기에서는 노래 만들기를 통해 어휘습득 뿐만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던 형식에서 벗어나 새롭고 독창적인 어휘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7회기와 8회기는 동식물 및 자연을 주제로 하였으며 7회기는 청각적 자극으로 들어온 의성어, 의태어를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시키고자 하였다. 마지막 8회기는 노랫말 채우기보다 상위단계인 작사하기로 열린 결말의 노래를 사용하여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 하였으며 새로운 상황들에 대한 적절한 어휘를 구조에 맞게 창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회기의 활동 및 치료적 논거의 요약은 <표 III-6>와 같다.

<표 III-6>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의 매 회기 활동 및 치료적 논거

주 회 제 기	활동 내용	치료적 논거
나 와 가 족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의 방법 설명 • 인사노래 배우기 • 노래가사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소개하기 • 신체어휘를 노래 가사에 넣어 동작으로 표현하며 가창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이름을 노래 가사에 넣어 부르는 것은 아동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으며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 어휘를 이해하고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동이 흥미를 가지고 목표어휘를 습득할 수 있게 하여 어휘능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을 연상시키는 노래 감상 후 직업과 기관에 관련된 그림카드를 보며 함께 장래희망에 대하여 토의하기 • 자신의 장래희망을 가사에 넣어 가창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카드의 활용은 아동이 가사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음악 감상 후 가사토의는 자신이 알고 있는 어휘의 개념을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된 어휘의 개념을 가사에 넣어 불러보는 것은 습득된 어휘의 지속적인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를 듣고 노래가사에 나온 상황을 생각해 보고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기 • 표현한 어휘를 노래가사에 넣어 가창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은 노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타인이 만든 가사를 듣고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경험하며 언어적 표현을 미리 연습할 수 있다.
친구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습득된 어휘를 가지고 구성원들과 문답형식의 노래를 만들어 신체동작으로 표현하며 가창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이 구조화된 노래에 어휘를 넣어 부르는 것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구조적 형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는 맥락에 맞는 어휘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언어습득 과정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신체활동은 반복적으로 어휘에 노출되게 하여 아동이 습득된 어휘를 장기간 기억할 수 있게 돕는다.
생활도구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를 직접 탐색해보고 어휘로 표현한 뒤 정해져있는 노래가사에 어울리는 어휘를 넣어 노래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를 탐색하고 어휘로 표현해보는 활동은 제한된 어휘를 사용하는 아동의 상상력을 높여주어 독창적인 표현을 유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감상을 하며 일상에서 스쳐지나가던 소리들을 듣고 자신의 어휘로 표현하기 • 자신이 만든 노래를 가지고 지휘자(치료사) 역할 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가사의 어휘를 탈피하여 새로운 어휘를 창작하고 대입하는 노래 만들기 활동은 새로운 어휘에 대한 흥미를 자극한다. • 아동은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성공적인 리더십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활동에 대한 만족과 흥미를 높일 수 있으며 자신감과 기대감으로 인하여 제시된 상황이나 어휘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동 식 물 과 자 연	<p>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 감상 후 가사 나온 다양한 동물을 손유희로 표현하며 동물 소리 모방하기 • 의성어 및 의태어를 사용하여 맥락에 맞게 노래 만들기, 가창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유희활동은 아동의 주의집중 및 흥미를 높이며 상상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창의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 아동은 들리는 청각적 자극을 재해석하여 말로 표현함으로써 타인에 의한 학습이 아닌 자신만의 어휘로 만들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아동은 습득된 어휘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
	<p>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를 감상한 후 가사의 내용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 나눈 뒤 구조에 맞게 노래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 토의는 노래 만들기 활동의 전 단계로 이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자신의 생각이나 이야기를 노래 만들기 활동을 통해 가사로 만들며 아동은 습득된 어휘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본 연구의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 활동은 아동에게 친숙한 동요를 사용하였다. 동요의 선정 기준은 회기의 주제와 목표에 맞는 가사, 곡의 분위기, 선율, 리듬, 빠르기 등 음악적 요소를 고려하여 선별하였다. 각 회기에 사용된 노래 및 치료적 논거는 <표 III-7>과 같다.

<표 III-7>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의 매 회기 노래 및 치료적 논거

주제	회기	음악자료	치료적 근거
나와 가족	1	신체이름 (4/4, 다장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어휘를 표현할 수 있는 지시어가 포함되어 있는 가사는 의도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어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만 4세-5세 아동의 음역대인 도-솔의 5도로 이루어져 있는 곡은 아동이 자연스럽게 따라 부를 수 있어 아동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
	2	곰 세 마리 (4/4, 다장조), 어른이 되면 (4/4, 바장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되는 후렴구는 구조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며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구조는 아동의 독창적 언어표현을 촉진시킨다.
친구	3	유치원에서 (12/8, 라단조), 꼭 참았네 (4/4, 바장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리듬의 반복은 아동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유도하며 구체적인 상황의 가사는 언어적 지시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꼭 참았네’는 아동이 느꼈던 부정적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곡으로 화나거나 짜증나는 등의 부정적 상황에서 느꼈던 자신의 감정을 어휘로 표현할 수 있다.

	4	여우야 여우야(4/4, 라단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답형식의 전래동요는 언어발달에서의 질문/답과 같은 맥락으로, 노래를 부르고 만드는 과정에서 구조에 어울리는 올바른 어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만 4세-5세 아동은 규칙적인 리듬에 맞춰 노래 혹은 신체적 움직임이 가능하다. 이는 반복되는 짧은 리듬의 찬트노래인 ‘여우야 여우야’가 해당 아동의 연령별 음악 발달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노래임을 의미한다.
생활 도구	5	도레미 노래 (4/4, 다장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휘의 앞 글자를 지정하여 독창적인 표현을 유도하는 가사는 적절한 어휘와 적절하지 못한 어휘를 구별하고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의 특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6	나는 숲속의 음악가(4/4, 바장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를 언어적으로 표현한 가사는 아동이 다감각적으로 경험한 소리들을 노래가사에 넣어 부를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있다. 이는 다양한 의성어 및 의태어의 사용을 유도하여 독창적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동식 물과 자연	7	작은 동물원(4/4, 다장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마디로 이루어진 작은 세도막 형식은 주의집중을 유지하기 어려운 아동에게 적합한 형식으로 이러한 짧고 간단한 형식은 노래 가사에 포함되어 있는 어휘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작은 동물원’은 보통빠르기(moderato)의 곡으로 아동이 안정감 있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돕는다.

8 고기잡이(2/4,
사장조)

- 열린 결말로 이루어진 가사는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 하며 몇 가지 노랫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상황과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상황에 따라 어휘 및 구문을 수용 및 배제할 수 있어 어휘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아동의 연령에 맞게 구성된 음악적 요소는 아동의 흥미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청각적 자극에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의집중을 촉진시킨다. 또한 함축된 의미의 가사는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6. 자료의 수집과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실험처치에 대한 변화의 추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각 척도의 하위요인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가 유의한지를 알아보았다.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모든 통계적 분석은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이다.

IV.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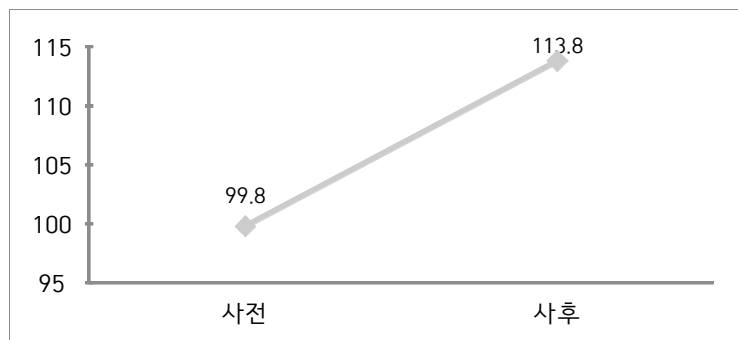
1.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에 미치는 영향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어휘능력의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차이를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휘능력 점수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p < .05$).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1>, <그림 IV-1>과 같다.

<표 IV-1> 어휘능력에 대한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정

	사전검사	사후검사	Z
	M(SD)	M(SD)	
어휘능력 (n=7)	99.80(26.13)	113.80(20.34)	-2.37*

* $p < .05$



<그림 IV-1> 어휘능력 사전사후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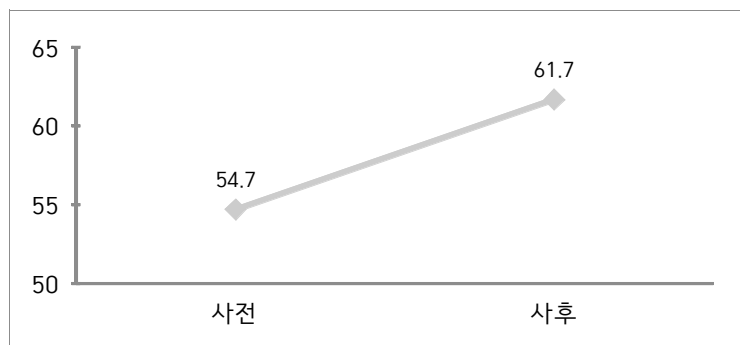
1)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능력에 미치는 영향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표현어휘능력의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 평균차이를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현어휘능력 점수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p < .05$).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2>, <그림 IV-2>과 같다.

<표 IV-2> 표현어휘능력에 대한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정

	사전검사	사후검사	Z
	M(SD)	M(SD)	
표현어휘능력 (n=7)	54.70(12.11)	61.70(5.72)	-1.99*

* $p < .05$



<그림 IV-2> 표현어휘능력 사전사후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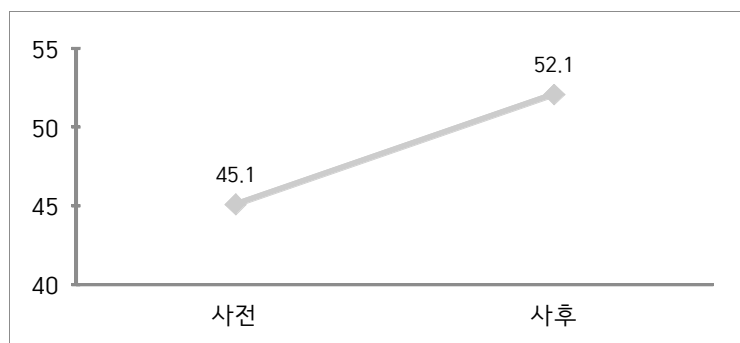
2)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어휘능력에 미치는 영향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어휘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수용어휘능력의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 평균차이를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용어휘능력 점수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p < .05$).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3>, <그림 IV-3>과 같다.

<표 IV-3> 수용어휘능력에 대한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정

	사전검사	사후검사	Z
	M(SD)	M(SD)	
수용어휘능력 (n=7)	45.10(15.80)	52.10(14.87)	-2.38*

* $p < .05$



<그림 IV-3> 수용어휘능력 사전사후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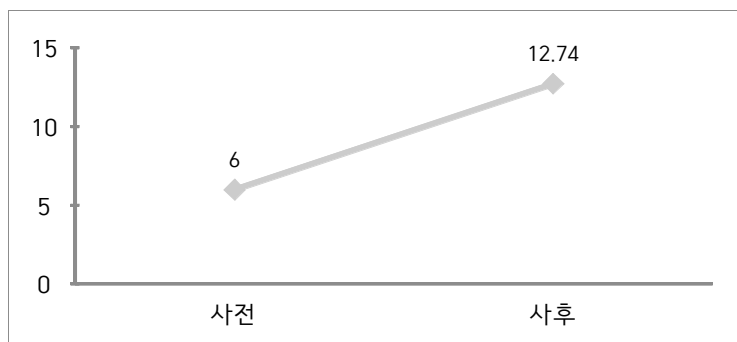
2.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언어창의성의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 평균차이를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언어창의성 점수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p < .05$).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4>, <그림 IV-4>과 같다.

<표 IV-4> 언어창의성에 대한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정

	사전검사	사후검사	Z
	M(SD)	M(SD)	
언어창의성 (n=7)	6.00(3.21)	12.74(1.60)	-2.37*

* $p < .05$



<그림 IV-4> 언어창의성 사전사후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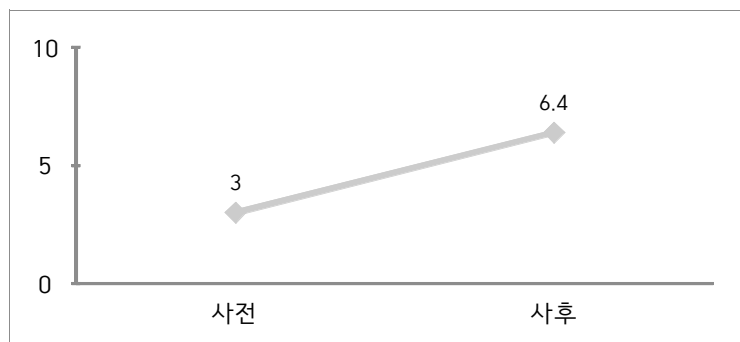
1)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유창성에 미치는 영향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유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언어유창성의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 평균차이를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언어유창성 점수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p < .05$).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5>, <그림 IV-5>과 같다.

<표 IV-5> 언어유창성에 대한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정

	사전검사	사후검사	Z
	M(SD)	M(SD)	
언어유창성 (n=7)	3.00(1.52)	6.40(0.78)	-2.41*

* $p < .05$



<그림 IV-5> 언어유창성 사전사후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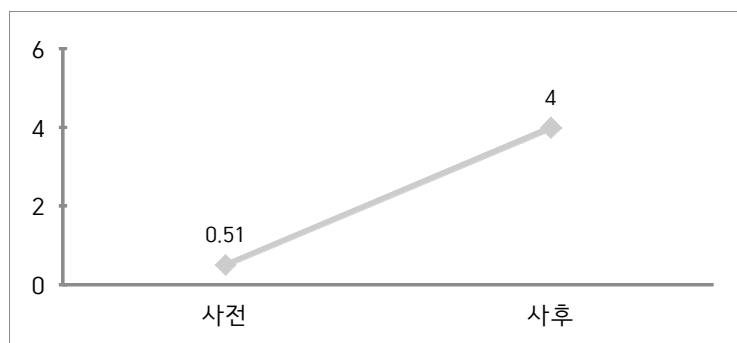
2)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독창성에 미치는 영향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독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언어독창성의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 평균차이를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언어독창성 점수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p < .05$).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6>, <그림 IV-6>과 같다.

<표 IV-6> 언어독창성에 대한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정

	사전검사	사후검사	Z
	M(SD)	M(SD)	
언어독창성 (n=7)	0.51(0.78)	4.00(0.57)	-2.39*

* $p < .05$



<그림 IV-6> 언어독창성 사전사후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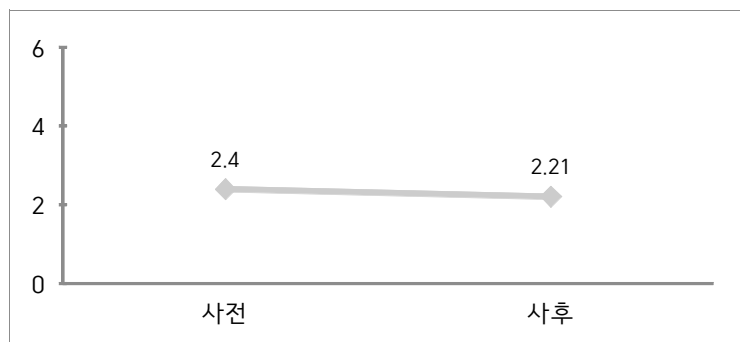
3)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유통성에 미치는 영향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유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언어유통성의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 평균차이를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언어유통성 점수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p > .05$).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7>, <그림 IV-7>과 같다.

<표 IV-7> 언어유통성에 대한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정

	사전검사	사후검사	Z
	M(SD)	M(SD)	
언어유통성 (n=7)	2.40(1.13)	2.21(1.12)	-.00

* $p > .05$



<그림 IV-7> 언어유통성 사전사후 평균점수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과 언어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발달단계를 참고하여 동요 및 어휘와 주제를 선정한 뒤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를 구성, 시행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실에 다니는 결혼이민자의 자녀 만 4세-5세 남·여 아동 7명을 대상으로 각 회기 당 40분씩 주 1회, 총 8회기의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를 시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과 언어창의성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용·표현 어휘능력 검사와 언어창의성 검사를 실험 전후에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p < .05$).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은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이며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적절하지 못한 어휘의 사용을 줄이고 상황적 맥락에 맞는 올바른 어휘의 사용을 유도한 것이 이들의 어휘능력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에게 친숙한 동요가 아동의 자발적인 언어 산출을 자극, 촉진시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노래 만들기 활동이 아동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송성민(2006), 손성민(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 활동은 어휘능력의 하위요인인 수용어휘능력($p < .05$)과 표현어휘능력($p < .05$)에서도 유의한 차이($p < .05$)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매 회기 노래를 감상하고 노래가사를 통해 아동이 자발적으로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제공한 것이 수용어휘능력에 영향을 미쳤으며, 새롭게 습득된 어휘를 맥락에 맞게 직접 넣어 문답형식으로 주고받은 활동이 아동의 표현어휘향상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문답형식의 노래 만들기가 자폐아동의 표현어휘능력을 향상하는데 효과적임을 보고한 한성은(2006)의 연구와 지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응답식 노래 만들기를 시행하여 아동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킨 Hoskins(1988)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노래 가사에서 습득된 어휘를 곡의 구조에 맞게 재창작하는 노래 만들기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창의성($p < .05$). 향상에 효과가 있다($p < .05$).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창의성은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이며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열린 결말의 노래를 감상한 후 다음에 제시될 내용을 풍부한 어휘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한 창작과정이 언어창의성에 영향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요의 단어나 언어의 형태, 아동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내용, 맥락의 풍성함 등이 아동의 인지, 언어, 창의성과 사고력을 촉진시켜 언어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전인옥·이숙희, 2008). 이는 독특한 어휘를 사용하여 노래를 만드는 활동이 아동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최은선(2004)과 Wolf(1992)의 견해와 부분적으로 같으며 동요의 가사가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효과적임을 밝힌 임혜정(2004)의 견해와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창의성을 증진시키는 활동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 활동은 언어창의성의 하위요인인 언어유창성($p < .05$), 언어독창성($p < .05$) 영역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언어융통성($p > .05$)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치료를 시행하여 창의성의 하위요인인 유창성, 독창성에 유의한 변화를 가져온 박소영(2004), 김성은(2003)의 연구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구성한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 활동은 한국어를 읽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가적으로 그림카드를 사용하였다. 시각적 자극은 타 감각에 비해 빠르고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만 자극의 강도가 강해 확산적인 사고로 기능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향후 언어융통성의 유의한 향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감각적 접근이 용이한 부가적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의 이해를 돕는다면 보다 유의한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과 언어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그 결과, 아동에게 친숙한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과 언어창의성 향상에 긍정적인 중재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언어창의성의 하위요인인 언어융통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 활동 이외에 부가적으로 사용되는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이해를 돕는다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융통성 향상에 효과적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에게 친숙한 동요가 언어발달의 교육적, 치료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매체로 활용될 수 있으며, 대상에 따라 음악의 요소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과 언어창의성 향상에 유의한 치료적 중재임을 입증하였다. 이는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지연에 좋은 중재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적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학습부진, 또래관계의 어려움 등의 이차적 문제를 감소시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정서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 활동은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실재를 근거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학교 및 기타교육기관의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한 참고자료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의가 있다.

2. 제언

본 연구는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과 언어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표집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의 대상을 베트남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로 제한하였다. 이로 인해 표본의 크기가 작아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표집 범위와 크기를 확대하고 결혼이민자의 국가별, 참여자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추후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증해볼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기관의 일정을 고려하여 8회기의 단기 활동으로 진행되어 그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기관의 제반 여건과 일정을 고려할 때 8주의 활동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적합한 기간이 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기관과 상세일정을 조율하여 활동의 장기적 효과를 검증하고 추적조사를 통해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 활동의 지속적인 효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갈향숙 (2000). 동요의 음악성과 문학성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강승희, 김정섭 (2003). 초등학교 언어 영재 아동과 일반 아동의 언어적 창의성 발달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6(1), 401-423.
- 강정란 (2008).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이용한 글쓰기 활동이 아동의 언어창의성 및 쓰기 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고이순 (2011). 동요 노랫말 바꾸기 활동이 지적장애학생의 어휘능력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고홍월, 황배향, 강유임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대인관계능력 향상 프로그램. *청소년상담연구*, 18(2), 71-84.
- 공종숙 (2008). 동요를 활용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이 유아의 어휘능력 및 이야기 구성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육과학기술부 (2014a). (초등학교 1-2학년) 국어: 교사용지도서. 서울: 미래엔.
- 교육과학기술부 (2014b).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www.moe.go.kr에서 2015년 9월 4일 자료 얻음.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
- 교육부 (2010).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 www.moe.go.kr에서 2015년 9월 4일 자료 얻음.
- 교육부 (2015). 2015년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계획 발표. www.moe.go.kr에서 2015년 9월 4일 자료 얻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a). 국적법. <http://www.law.go.kr>에서 2015년 4월 27일 자료 얻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b). 다문화가족지원법. <http://www.law.go.kr>에서 2015년 4월 27일 자료 얻음.
- 권세미 (2009). 유아의 자기표현능력 증진을 위한 오르프 음악활동의 적용.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윤주 (2010).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 권희진 (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원예치료의 지속적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가현 (2016). 임상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력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 김경연 (2013). 노래중심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발달과 자음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 김광해 (1997). 어휘능력과 어휘능력의 평가. 신청어문.
- 김근자 (2009). 사물놀이 활동을 통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향상. *음악교육*, 10, 1-38.
- 김미경, 최성규 (2008). 노랫말과 그림카드 매칭이 언어발달지체아의 어휘능력에 미치는 영향. *언어치료연구*, 17(1), 161-177.
- 김미려 (2012). 심리운동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수용언어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김미진 (2010). 베트남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족 레질리언스에 관한 질적연구 :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김민서 (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 및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 창의성 차이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민정 (2016). **유치원 교육과정의 유치원 교사용지도서에 수록된 동요의 음악적 특성 및 교습·학습방법 분석: 제3차- 3-5세 누리과정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보은 (2008). **창작동요에 관한 분석과 경향 연구: 1990-2000년대 KBS, MBC 창작동요제 입상곡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상희 (2015). **다문화가정 문식성 교육실태와 요구분석**.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새롬 (2014). **국내 청각장애인 대상 음악 적용 연구 동향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선정, 강진숙 (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휘능력 고찰**. *이중언어학회*, 40, 31-55.
- 김성욱 (2013). **다문화 이혼가정 중국인 어머니가 인식한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지원서비스의 문제점**.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성은 (2003). **상상놀이 중심의 음악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김성화 (2004). **동요를 이용한 시간지연법이 발달지체유아의 어휘능력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소정 (2009). **음악교육이 유아의 창의성 개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고찰**.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수정 (2008). **어머니의 언어유형과 유아의 창의성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수진 (2015).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의 역할 수행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 14(1), 81-97.
- 김영숙, 우정한 (2012).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13, 31-62.
- 김영태 (2015).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학지사.
-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2009). 수용·표현 어휘능력검사(REVT)의 개발연구 : 문항개발 및 신뢰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14(1), 34-45.
- 김유선 (2014). *음악치료가 청각장애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 김은선 (2010).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적, 감정적 자기 표현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주선 (2008). *통합적 음악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주원 (2012). *다문화가정 유아 언어발달을 위한 동화표현활동*.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 김지연 (2003). *상호작용 음악활동이 다운증후군 유아의 언어 학습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김지영 (2008). *제7차 유치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유치원교육 과정의 이해*. 서울: 지북스.
- 김지혜 (2013). *국내 다문화교육의 연구 동향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진영 (2009). *김진영 동요집*. 서울: 교문사.

- 김진화 (2007). 컴퓨터 동화를 활용한 언어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하늘 (2014). 점토를 이용한 집단 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동국대학교.
- 김현희 (2007).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한국민족연구원, 31, 6-50.
- 김혜경 (1996). 6차 교육과정의 유치원 노래 분석. *어문회*, 21, 127-138.
- 김혜경, 김송옥 (2001). 피아노 교육이 어린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만4세부터 11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교과교육학회*, 4(1), 307-324.
- 김혜정 (2006). 창작국악동요의 현황과 과제: 국립국악원 창작국악동요제 수상작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40, 23-48.
- 김희수 (2013). 주의집중력 결핍 유아의 집중능력향상 프로그램이 주의집중력과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8(4).
- 다누리 (2015). 2015 다문화가족 지원현황. <http://www.liveinkorea.kr>에서 2015년 6월 14일 자료 얻음.
- 문성식, 김이진, 김연경, 김민주(2012). 다문화가정의 이해: 결혼이민가정의 가정폭력, 자녀왕따, 학습부진. 경기: 어울누리.
- 박경숙 (2015). 노래 중심 음악치료가 언어발달지체 쌍둥이 유아의 수용·표현 언어에 미치는 영향: 양순음/口/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 박경순 (2009). 지적장애아동의 또래관계를 위한 노래 만들기 사례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남자, 조인숙 (2001). 유아의 구어발달에 관한 연구- 표현언어와 문장이해력, 어휘능력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연구*, 27, 190-208.
- 박민정 (2014). 국내 다문화가족 관련 음악치료 연구 논문 동향 분석. 미간

- 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소연 (2004). 동요활동이 자폐성 아동의 어휘습득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 6(2), 38-51.
- 박소영 (2004). 동화를 이용한 비구조적 음악극이 유아의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박윤주 (2008). 어머니 언어통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언어능력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배진나 (2005). 노랫말 개사 활동이 유아의 어휘력과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배현주 (2014).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언어발달지체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 빈경화 (2013). 동요 노랫말 개사 활동이 정인지체학생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선애순, 권순황 (2010). 그림동화책 읽어주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12(1), 255-272.
- 성두원 (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휘 이해 능력 실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진주교육대학교 대학원.
- 성한나 (2016). 음악극 창작 활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표현력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세이브더칠드런 (2014). 다문화가정 아동지원사업. www.sc.or.kr에서 2015년 6월 14일 자료 얻음.
- 손경아 (2007). 전래동요를 활용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 및 음악능력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성민 (2010). **뇌병변 장애아동의 자기표현 능력을 위한 음악치료 활동의 비교 연구: 악기연주, 노래 만들기, 음악치료 놀이극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복선 (2013). **어머니 국적에 따른 취학 전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조음음운 능력비교.**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송성민 (2006). **자폐성 아동의 노래 만들기를 통한 자발적 언어표현 증진 사례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승윤희 (2000). **감성지능의 이해와 음악교육의 역할.** *음악교육연구*, 19(1), 109-130.
- 안원석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표현 실태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안전행정부 (2015a). **지방자치단체 외국계 주민 현황.** www.moi.go.kr에서 2015년 8월 17일 자료 얻음.
- 안전행정부 (2015b).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www.moi.go.kr에서 2015년 8월 17일 자료 얻음.
- 안진현 (2007). **6학년 초등학생이 선호하는 창작동요 분석 연구 : 2005년 MBC, KBS 창작동요제 입선곡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미자 (2008). **동시 짓기를 통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 및 음악능력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성오, 황보명 (2009).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비교연구.** *언어치료연구*, 18(1), 37-56.
- 양송희 (2012). **동남아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2·4학년 아동의 수용어휘력이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원광대학교 동서보완

의학대학원.

- 양효순 (2008). 어휘력 평가도구 개발 연구: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여성가족부 (2012).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 중단 사유. www.mogef.go.kr 에서 2015년 5월 24일 자료 얻음.
- 여성가족부 (2015).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유형. www.mogef.go.kr에서 2015년 5월 24일 자료 얻음.
- 오선화, 황은영, 전유미 (2016). 음악활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변화 및 우울감소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2(3), 203-225.
- 오소정, 김영태 (2014). 학령기 다문화가정 언어장애 아동의 어휘지식 및 구어 처리 과제 수행 특성. *한국언어치료학회*, 23(1), 55-88.
- 오승희 (2006). 주제 중심 통합 영어 수업 모형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오정숙, 권정희 (2009). 유아음악교육. 서울: 창지사.
- 유승애 (2009). 4, 5, 6세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실태.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유한나 (2015). 다문화가정 유아와 일반 가정 유아의 창의성 비교.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윤경동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 실태조사 및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경선, 이유미 (2014). 유아 한글 교육용 어휘 목록 선정을 위한 연구. *중앙어문학회*, 59, 65-84.
- 윤선영 (2016). 노래심리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일

반대학원.

윤지원 (2011). 2007년 개정교과에 따른 음악교과서 감상 영역 지도의 실제: 초등학교 5, 6학년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이경미, 정규진, 최애나 (2011).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표현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7(3), 39-61.

이경희 (2007). 동요를 활용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 및 동시 짓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이명순, 박현, 박찬희 (2014). 영 유아발달 지원 서비스(언어영역)에 대한 다문화가정 부모의 만족도 및 요구: 경남 창원지역의 서비스 투자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언어치료학회*, 23(3), 177-187.

이삼숙 (2012).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활동이 다문화가정 언어지체유아의 어휘능력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이선경 (2011). 교육과정 생활주제 중심의 신체활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6(1), 47-58.

이수아 (2016). 음악극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일반아동과 다문화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원광대학교 보건보완의학대학원.

이숙희 (2002). 전래동요의 통합적 활용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옥주 (2015). 음악요소에 기초한 유아음악교육. 서울: 신정.

이우연 (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발달 특성연구: 어머니 모국어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충남대학교대학원.

이은경 (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재강 (2002). 언어와 음악의 상관관계 고찰을 위한 연구. *인문언어*, 3, 287-301.
- 이진영 (2012). 지적장애 대상 음악치료 관련 국내 학위논문 경향분석 (1999-2012).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효숙, 심성경, 백영애, 김경의 (2004). 노랫말 바꾸기 활동이 유아의 어휘능력,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35(1), 127-144.
- 임혜정 (2004). 유아교육기관에서 선호하는 동요에 관한 조사 및 악곡 분석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 임홍재, 황보영란 (2007). 논문(論文) : SCAMPER기법을 이용한 교사의 질문이 유아의 창의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학회*, 16(2), 1-21.
- 장은주 (2013). 유아음악교육(유아교육과 음악교육의 통합에 기초한). 서울: 양서원.
- 장인숙 (2014). 가사 바꾸기를 중심으로 한 음악치료가 지적장애아동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에 미치는 영향. *한국임상치유예술학회*, 3, 63-79.
- 전경원 (1996). 창의적인 문제해결력. 서울: 양서원.
- 전경원 (2000). 유아 종합 창의성 검사 요강. 서울: 학지사.
- 전경원 (2010). 유아 종합 창의성 검사. 서울: 학지사.
- 전수연 (2014). 다문화가정 대상 국내 예술치료 연구의 동향분석.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인옥, 이숙희 (2008). 유아음악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정경희, 황상심, 배소영, 김미배 (2015).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촉진교육 효과에 대한 질적 연구. *언어치료연구*, 24(1), 361-378.
- 정국희 (2008). 통합적 음악활동이 만 3세 유아의 발달 및 음악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계명대학교 유아교육대학원.

- 정태미 (2010). 음악치료 활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세대학교 대학원.
- 정현주 (2014).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서울: 학지사.
- 조미선, 박선호 (2016).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문화 주제 중심 영어교육 프로그램 효과. *교육논총*, 36(1), 23-47.
- 주효주 (2012). 다문화가정 유아의 또래 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극 프로그램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차명선 (2010). 오르프 음악활동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 최애나 (2012). 노래 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8(4), 1-19.
- 최은선 (2004). 심미적 질문에 따른 노랫말 짓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정혜 (2010). 제 5장 다문화가족 연구 동향분석: 2005-2010년 발간된 국내 논문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22, 79-98.
- 최진영 (2015).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 표현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통계청 (2009). 2009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http://kostat.go.kr> 에서 2015년 5월 24일 자료 얻음.
- 통계청 (2015).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현황. <http://kostat.go.kr> 에서 2015년 5월 24일 자료 얻음.
- 하밍타잉 (2008).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 : 베트남 여성의 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한성은 (2006). 사회적 상황 중심의 노래활동을 통한 자폐아동의 언어표현 증진에 관한 사례연구. *음악치료교육연구*, 3(1).
- 한은숙 (2013). 동화역할극이 다문화가정 언어발달지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현혜선 (2007). 글 없는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 꾸미기와 구연활동이 유아의 언어창의성 및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배재대학교 대학원.
- 홍은의 (2011). 음운인식 향상에 중점을 둔 음악중재가 다문화유아의 조음 음운능력 및 수용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황상심 (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초기 표현어휘 발달과 성차. *언어치료연구*, 10(1), 193-209.
- 황상심, 정옥란 (2008).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발달과 관련변인 상관연구. *언어치료연구*, 17(1), 81-102.
- 황수현 (2015).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황지연 (2001). 노래 부르기를 활용한 언어훈련이 자폐성아동의 언어능력향상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황혜진 (2014). 전래동요 중심의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 스트레스 및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 Aigen, K. (2011). *Music Centered Music Therapy*. 이경숙, 류리(역). *음악중심 음악치료*.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2009).
- Baker, F., & Wigram, T. (2008). *Songwriting Method, Techniqu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or Music Therapy Clinicians, Educators And Students. 최미환 (역). 치료적 노래 만들기: 음악치료의 임상 및 교육을 위한 지침서.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2005).

- Balkin, A. (1985). The creative music classroom: Laboratory for creativity in life. *Music Educators Journal*, 71(5), 43-46.
- Bates, E., Dale, P., & Thal, D. (1995).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theory of language development. In P. Fletcher & B. Macwhinney (Eds.), *The handbook of child language* (pp. 96-151). Oxford: Blackwell.
- Choi, M, H. (2010). A pilot analysis of the psychological themes found during the caring at Columbia-music therapy program with refugee adolescents from North Korea. *Journal of Music Therapy*, 47(4), 380-407.
- Cullinan, B. E. (1989). *Literature and the Child*. New York: Harcourt Bra Jovanovich Publishers.
- Davis, W., Gfeller, K, & Thaut, M. (1992). *Introduction to music thertapy: Theory and Practice(2nd Ed.)*. Dubuque, IO: McGraw- Hill.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New York: Basic Books.
- Hoskins, C. (1988). Use of music to increase verbal response and improve expressive language abilities of preschool language delayed children. *Journal of Music Therapy*, 25(2), 73-84.
- Jerling, P. A. (2013). *Music therapy for second language english-speaking learners in an english-medium school: A case study*. Pretoria: University of Pretoria Press.
- Jespersen, K. V. & Vuust, P. (2012). The effect of relaxation music

- listening on sleep quality in traumatized refugees: A pilot study. *Journal of Music Therapy*, 49(2), 205-229.
- Lynn, J. J. (1988). *The use of music therapy increase language in institutionalized mentally retarded female adults*. Austin: Texas of University Press.
- Nordoff, P., & Robbins, C. (1983). *Music therapy in special education*. New Braunfels, TX: Barcelona Publishers.
- O' Callaghan, C. (1997). Therapeutic opportunities associated with the music when using song writing in palliative care. *Music Therapy Perspectives*, 15(1), 32-38.
- Rosenblatt, L. M. (1994) *The reader, the text, the poem : the transactional theory of the literary work*. Carbondale, IL :Southern Illinois Press.
- Russell, D. L. (1991). *Literature for children*. New York: Longman Publishing Group.
- Schmidt, J. A. (1983). Songwriting as a therapeutic procedure. *Music Therapy Perspectives* 1(2), 4-7.
- Sloss, C. (1996). Cross-cultural music thertapy in Canada Canadian. *Journal of Music therapy*, 4(1), 1-39.
- Stainer, J. & Barrett, W. A. (1875). *Dictionary of musical terms*. London: Novelle.
- Topozada, M. (1995). Multicultural training for music therapists: An examination of current issues based on a national survey of professional music therapies. *Journal of Music Therapy*, 32(2), 65-90.
- Torrance, E. P. (1962). *Guiding creative tal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Webster, P. R. (1990). Creativity thinking in music: Creativity as creative thinking. *Music Educator Journal*, 76(9), 21-28.
- Wolf, J. (1992). Let's sing it again: Creating music with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47(2), 56-60.

부록 목차

<부록>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 가사(아동과 함께 만든 노래)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 가사

1 회기

목표	라포 형성/ 신체어휘 이해 및 표현
주제	나와 가족
음악	신체이름(4/4, 다장조)

‘신체이름’ 손뼉 치고 머리에 손뼉 치고 무릎에
가사 손뼉 치고 머리에 눈은 어디 있나요

개사
1. 손뼉 치고 발에 손뼉 치고 배에
손뼉 치고 엉덩이에 귀는 어디 있나요
2. 손뼉 치고 발가락에 손뼉 치고 팔에
손뼉 치고 목에 손가락은 어디 있나요

2 회기

목표	직업 및 기관의 이해와 유창성 및 독창성 증진
주제	나와 가족
음악	곰 세 마리(4/4, 다장조) / 어른이 되면(4/4, 바장조)
‘곰 세 마리’ 가사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똥똥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히죽 히죽 잘한다.
개사	1.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잠을 자요 엄마 곰은 화를 내요 애기 곰은 춤을 춰요 우리 가족은 모두 O 명 2.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자동차 타요 엄마 곰은 요리해요 애기 곰은 공부해요 우리 가족은 모두 O 명
‘어른이 되면’ 가사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아빠처럼 넥 타이 메고 있을 까 엄마처럼 행주치마 입고 있을 까 팔팔라 다-같이 흥내내보자 나는 엄마 나도 엄마 아빠 다녀오세요 호호 나는 아빠 나도 아빠 여보여보 다녀왔소
개사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아빠처럼 넥타이 메고 있을 까 엄마처럼 행주치마 입고 있을 까 팔팔라 다-같이 얘기해보자 1. 나는 요리사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밥을 잘먹어서 나는 소방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불이 안 무서워서 2. 나는 엄마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엄만 이쁘니까 나는 선생님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해서

3 회기

목표	감정어휘의 이해 및 표현
주제	친구
음악	유치원에서(12/8, 라단조) / 꼭 참았네(4/4, 바장조)
‘유치원에서’ 가사	나는 유치원에서 블록놀이가 좋더라 블록으로 집을 만들면 정말 재밌더라 나는 유치원에서 미술놀이가 좋더라 점토로 만들기 하면 정말 멋있더라
개사	나는 유치원에서 인형놀이가 좋더라 인형으로 엄마아빠 놀이하면 정말 재밌더라 나는 유치원에서 놀이터가 좋더라 미끄럼틀타고 놀면 정말 재밌더라
‘꼭 참았네’ 가사	친구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내가 만든 집을 무너트렸네 내가 그린 그림을 가져갔네 나를 보고 놀리며 웃어대었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갔네 콩 하고 싶지만 꼭 참았네 친구야 친구야 다음부터 그러지마라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개사	친구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내 스티커를 뺏어갔네 내가 보고 있는 책을 던져버렸네 나를 툴하고 때렸네 내 발을 밟고 가버렸네 콩 하고 싶지만 꼭 참았네 친구야 친구야 눈물이 났지만 화가 났지만 짜증이 났지만 다음부터 그러지마라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4 회기	
목표	동사어휘의 습득 및 문답법 이해
주제	친구
음악	여우야 여우야(4/4, 라단조)
‘여우야 여우야’ 가사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 잔다 잠꾸러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세수한다 멧쟁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 죽었다)
개사	OO야 OO야 뭐하니 밥먹는다 멧쟁이 OO야 OO야 뭐하니 춤춘다 멧까꿍까 OO야 OO야 뭐하니 양치한다 깨끗하네 그- 다음은 누구 차례니 OO 다

5 회기	
목표	형용사 및 부사어휘의 습득
주제	생활도구
음악	도레미 노래(4/4, 다장조)
‘도레미 노래’ 가사	도는 하얀 도화지 레는 둥근 레코드 미는 초록 미나리 파는 예쁜 파랑새 술은 작은 술방울 라는 라디오고요 시는 졸졸 시냇물 다- 함께 부르자
개사	도는 거짓말하는 도둑 레는 상큼한 레몬 미는 그림그리기 미술 파는 윙윙윙 파리 술은 시원한 술바람 라는 후루룩 라면 시는 하나 둘 세 시작 다- 함께 부르자

6 회기

목표	독창성 및 의성어, 의태어의 습득
주제	생활도구
음악	나는 숲속의 음악가(4/4, 바장조)
‘나는 숲속의 음악가’ 가사	나는 숲속의 음악가 조그만 다람쥐 아주 익숙한 숨씨로 바이올린 켜기요 애애앵앵앵 애애앵앵앵 애애앵앵앵 애애앵앵앵 참 잘 하지요
	나는 숲속의 음악가 조그만 파랑해 아주 익숙한 숨씨로 피리를 불지요 삐리삐리리 삐리삐리리 삐리삐리리 삐리삐리리 참 잘 하지요
개사	나는 숲속의 음악가 몇쟁이 O O O 아주 익숙한 숨씨로 우드블럭 연주해요 토토통통통 끼리리리리 토토통통통 끼리리리리 참 잘 하지요
	나는 숲속의 음악가 똑똑한 O O O 아주 익숙한 숨씨로 셰이커 연주해요 치척치척치 치척치척치 쉼쉼쉼쉼쉼 쉼쉼쉼 찰찰 참 잘 하지요

7 회기

목표	청각적 자극에 대한 언어 융통성 증진
주제	동식물 및 자연
음악	작은 동물원(4/4, 다장조)
‘작은 동물원’ 가사	삐약 삐약 병아리 음메 음메 송아지 따당 따당 사냥꾼 뒤똥 뒤똥 물 오리 푸- 푸- 개구리 집게 집게 집게 가-재 푸르르르 르르르 물풀 소리
개사	어흥 어흥 호랑이 뽀족 뽀족 상어 뒤똥 뒤똥 펭귄 깡총 깡총 토끼 멍- 멍- 멍 강아지 야옹야옹야옹 고양이 윙 윙 윙 윙 꿀벌 펄럭 펄럭 나비

Abstract

The Effects of a Song Writing using Children's Song on the Improvement of Vocabulary Skills and Linguistic Creativity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Son, Sol-ee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 songwriting activity using children's song on the improvement of vocabulary skills and linguistic creativity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7 children of married Vietnamese immigrant women who attend the Korean class a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in Gyeonggi-do. The subjects participated in a songwriting activity using children's song. The songwriting activity using children's song was held once a week for forty minutes per session and a total of eight sessions.

The song-writing activity using children's song was created with choice of children's song and it was to examine their interaction with singing, listening and creating a song. In addition, song discussion was made along with revising lyrics and fill in the blank.

In order to identify the effects of a song writing using children's song

has on the vocabulary skills and linguistic creativity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and Korean Comprehensive Creativity Test for Young Children (K-CCTYC) were utilized. The collected data from the pretest-posttest were analyzed by using the frequency analysis through SPSS Statistics 23.0 program and Wilcoxon Signed Rank Test.

The result showed that the songwriting activity using children's song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vocabulary skills and linguistic creativity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proposed that song writing activity using children's song had conclusive effects for vocabulary skills and linguistic creativity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refore, the study announce the significance of songwriting activity using children's song for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to improve their vocabulary skills and linguistic creativity.